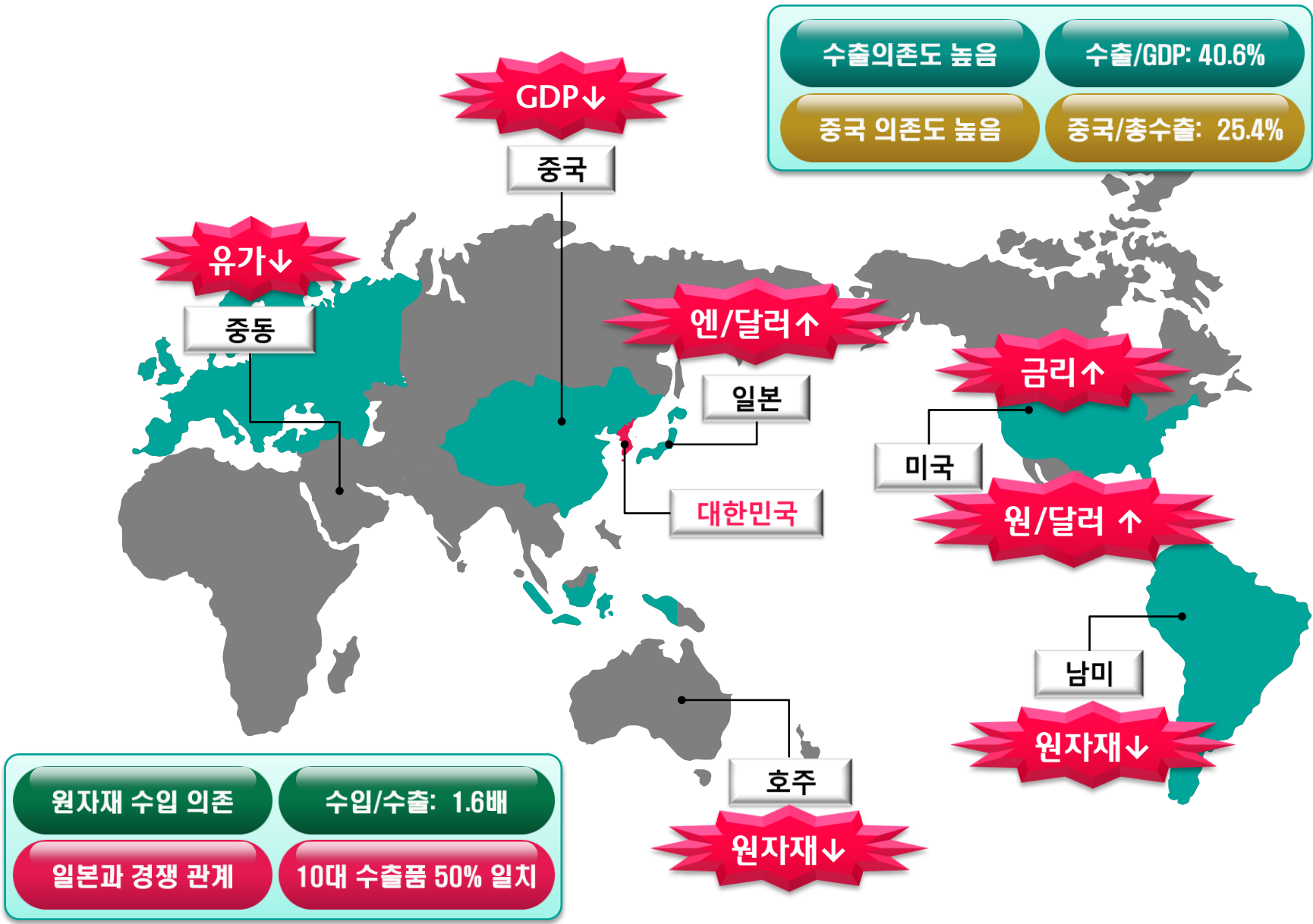

2016년 산업별 전망

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

2015년 12월 22일



글로벌 거시경제 이슈 및 한국 경제의 특수성



거시경제지표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

| 환경요인 | 방향 | 대상업종 | 산업에 미치는 영향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美 금리 ↑ | - | 자동차(신용시장) | 외자 유출, 현지 환율 상승, 판매 부진 |
| 엔/달러 ↑ | - | IT, 자동차, 철강, 조선, 기계 | 일본 업체 가격경쟁력 상승 일본 제품 수입 확대 |
| 중국 GDP ↓ | - | IT, 자동차, 철강, 비철금속, 조선, 해운, 기계, 석유화학 | 중국의 내수 수요와 수출 동반 감소 |
| 원/달러 ↑ | + | IT, 자동차, 기계 | 가격경쟁력 상승, 원화 환산이익 |
| 원자재 ↓ | - | 철강, 비철금속 | 자원국 경기 부진, 글로벌 수요 부진 금속 업체 판가 하락으로 연결 |
| 유가 ↓ | + | 정유, 석유화학, 해운 | 원료 가격 하락으로 마진 확대 연료비 절감, 물동량 증가 |
| | - | 정유, 석유화학, 조선, 해운, 건설 | 재고 손실 발생, 부산물 공급 과잉 플랜트 수주 감소, 운임 하락 압력 증가 |

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산업별 충격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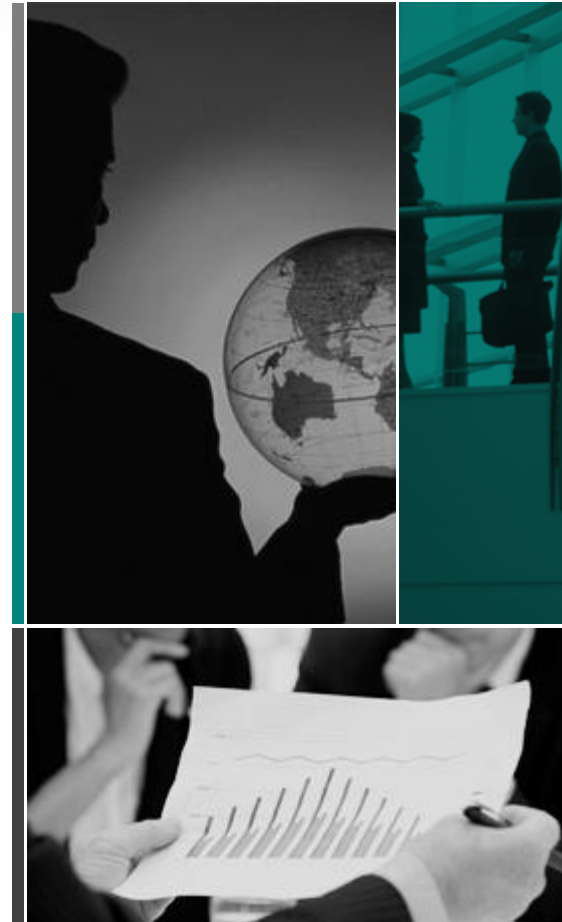
| | IT | 자동차 | 철강 | 비철 | 기계 | 조선 | 해운 | 정유 | 화학 | 건설 |
|----------|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-1 | -2 | -3 | -2 | -1 | -3 | -1 | 0 | -1 | -1 |
| 美 금리 ↑ | | - | | | | | | | | |
| 엔/달러 ↑ | - | - | - | | - | - | | | | |
| 중국 GDP ↓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 - | |
| 원/달러 ↑ | + | + | | | + | | | | | |
| 원자재 ↓ | | | - | - | | | | | | |
| 유가 ↓ | <div> <div>+1</div> <div>-1</div> </div> | | | | | | + | + | + | |
| | | | | | | - | - | - | - | - |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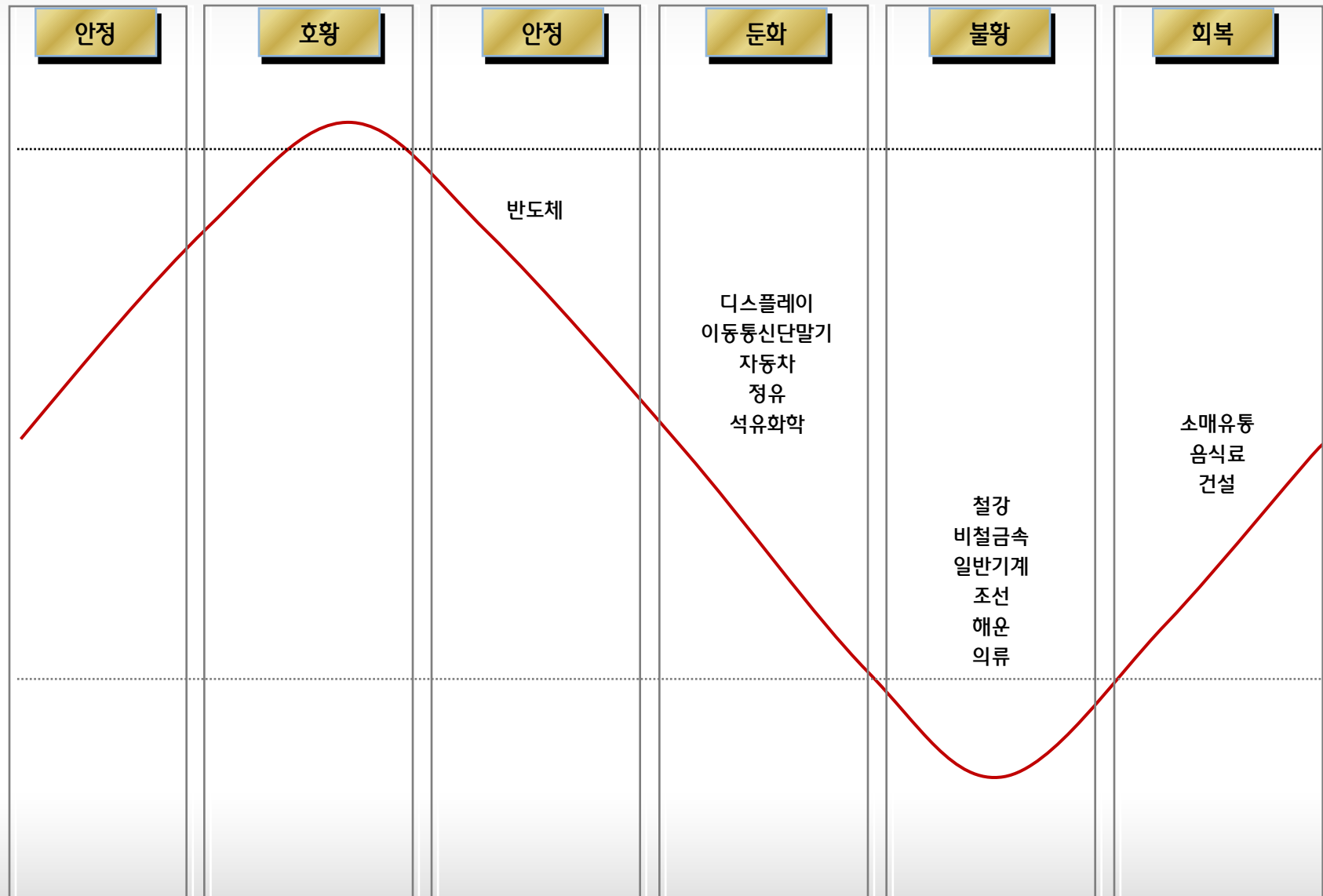
- I. 산업별 기상도 및 경기 사이클
- II.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

산업별 기상도 및 경기 사이클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- 1. 2016년 주요 산업별 경기 사이클
- 2. 2016년 주요 산업별 기상도



2016년 산업별 경기 사이클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016년 산업별 기상도

| 산업 | | 생산 | | 내수 | | 수출 | | 수익성 | |
|-------|----------|---|---|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
| 반도체 | |  |  | - | - |  |  |  |  |
| 디스플레이 | |  |  | - | - |  |  |  |  |
| 이통단말기 | |  |  |  |  |  |  |  |  |
| 화학 | 정유 |  |  |  |  |  |  |  |  |
| | 석유 화학 |  |  |  |  |  |  |  |  |
| | 섬유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철강 | |  |  |  |  |  |  |  |  |
| 비철금속 | |  |  |  |  |  |  |  |  |
| 조선 | |  |  | - | - |  |  |  |  |

| 호황 | 안정 성장 | 다소 회복 | 정체 상태 | 다소 부진 | 불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 |  |  |  |  |  |

2016년 산업별 기상도

| 산업 | 생산 | | 내수 | | 수출 | | 수익성 | |
|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 2015년 동향 | 2016년 전망 |
| 일반기계 |  |  |  |  |  |  |  |  |
| 자동차 |  |  |  |  |  |  |  |  |
| 음식료 |  |  |  |  | - | - |  |  |
| 해상운송 | - | - | - | - | - | - |  |  |
| 제약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소매유통 | - | - |  |  | - | - |  |  |
| 의류 |  |  |  |  | - | - |  |  |
| 건설 |  |  |  |  |  |  |  |  |

| 호황 | 안정 성장 | 다소 회복 | 정체 상태 | 다소 부진 | 불황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 |  |  |  |  |  |

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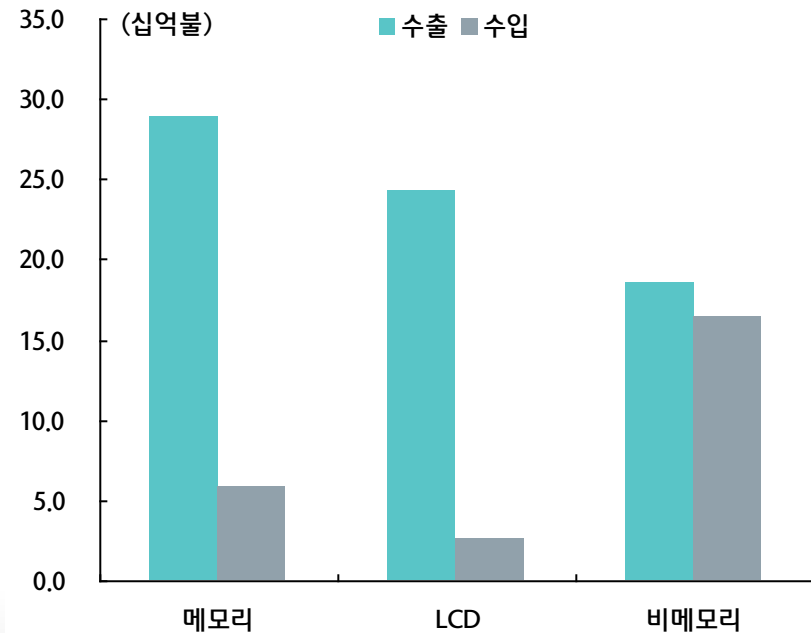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
| 1.반도체 | 9.정유 |
| 2.디스플레이 | 10.석유화학 |
| 3.이동통신단말기 | 11.소매유통 |
| 4.자동차 | 12.해운 |
| 5.조선 | 13.음식료 |
| 6.일반기계 | 14.의류 |
| 7.철강 | 15.건설 |
| 8.비철금속 | |



반도체/LCD: 수출 비중이 높아 원/달러 환율 상승 수혜

- 반도체,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므로 원/달러 환율 상승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
 - 특히, 메모리 반도체와 LCD패널의 수출액은 수입액의 5~9배에 달함
- 다만, 엔/달러 환율 역시 상승하고 있어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적
 - 엔화 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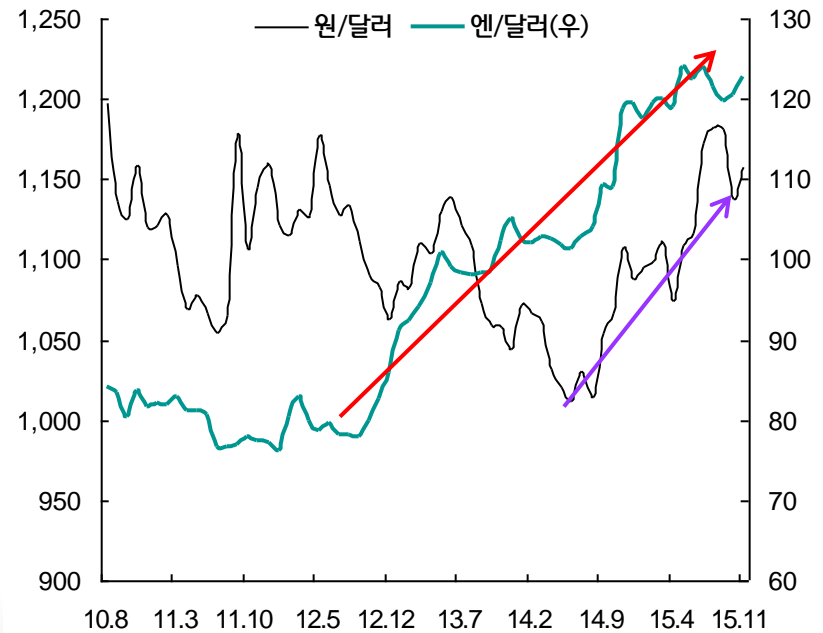
품목별 수출입 규모



- 주: HSK 기준 (2014)

- 자료: 한국무역협회

원화, 엔화의 대 달러 환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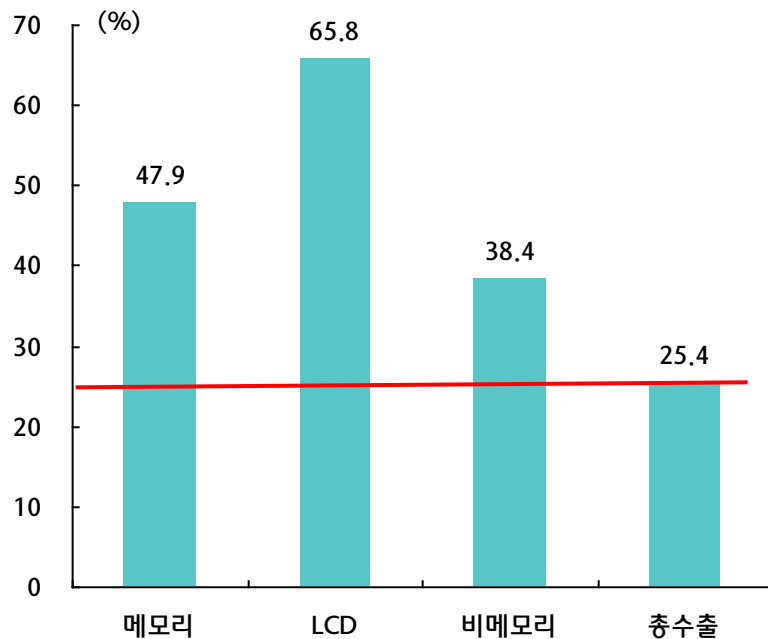


- 자료: Fnguide

반도체/LCD: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저성장 리스크에 노출

- 중국에 PC, TV 등 IT 완제품 생산기지가 많아 반도체, LCD패널 등 중간재 수요가 가장 많음
 - 한국 총수출의 중국 비중은 25.4%이나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은 38~65% 정도로 매우 높음
- 중국은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므로 중국의 경기 둔화는 IT 부품 수요 부진을 초래
 - 중국의 경기 부진과 IT 부품의 국산화율 상승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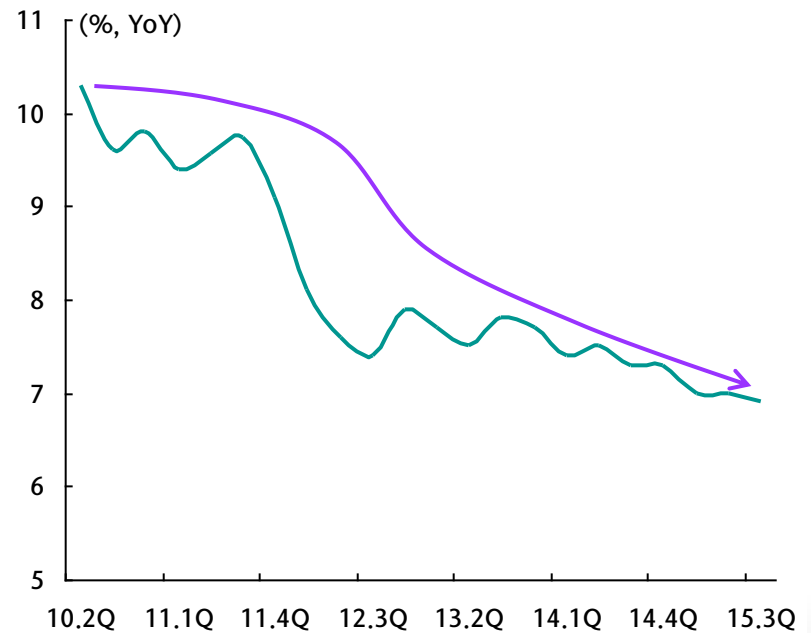
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



- 주: HSK 기준 (2014)

- 자료: 한국무역협회

중국의 GDP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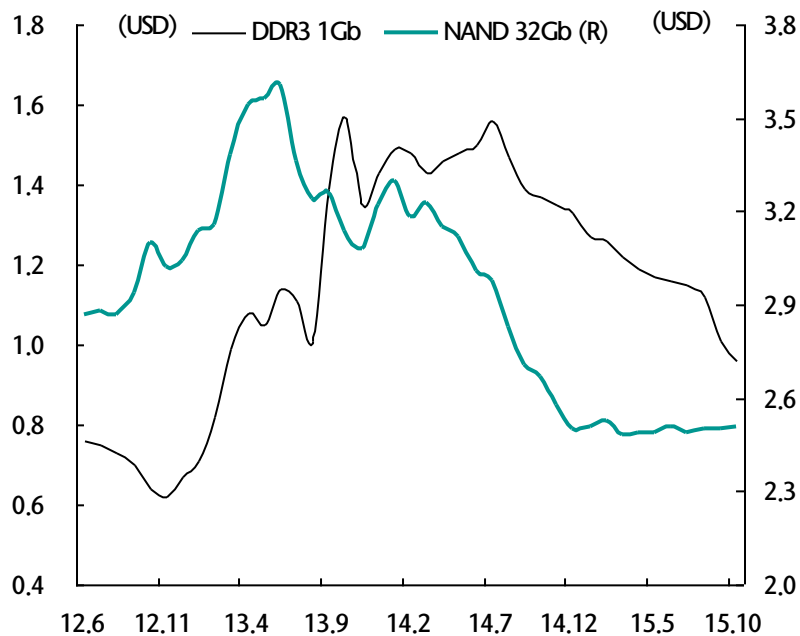


- 자료: Fnguide

반도체: 가격 하락 진정되고 투자 지표 양호한 흐름 전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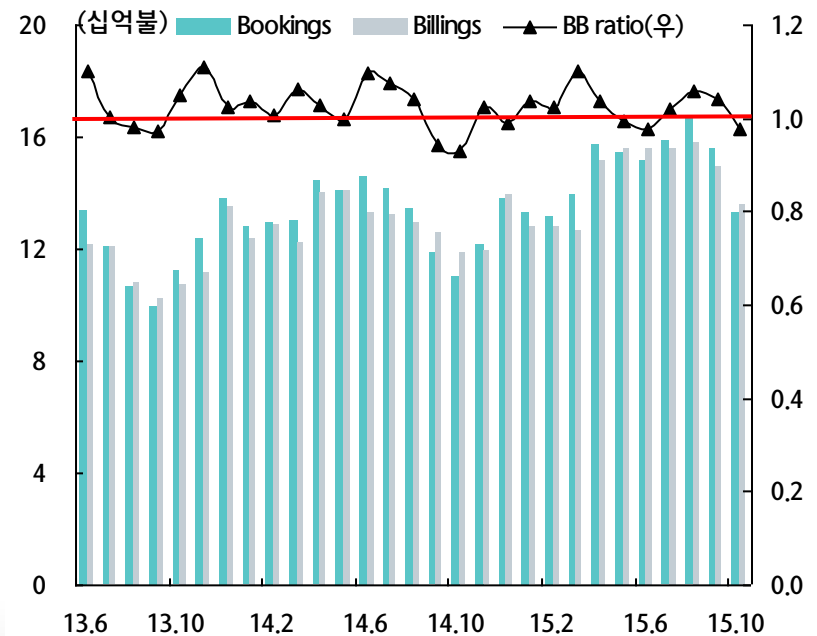
- 최근 DRAM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NAND 가격은 소폭 상승세로 전환해 우호적인 환경 조성
 - 지난 상반기 DRAM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익률 달성
-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인 BB율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은 낮음
 - BB율이 일시적으로 1 미만을 기록하더라도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

반도체 가격 동향



- 자료 : Bloomberg

북미 반도체 장비 수주/출하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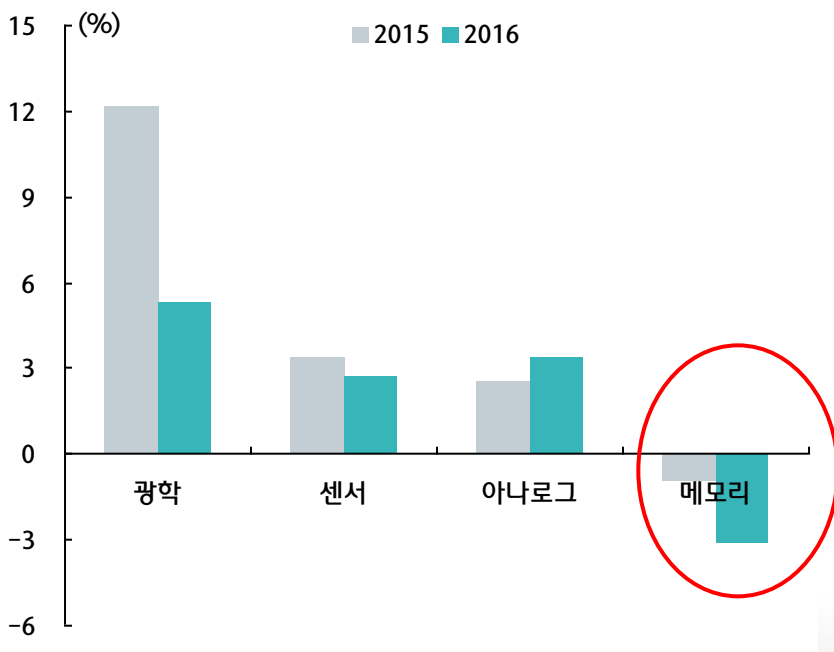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SEMI

반도체: 반도체 경기는 정점을 지나 다소 둔화 국면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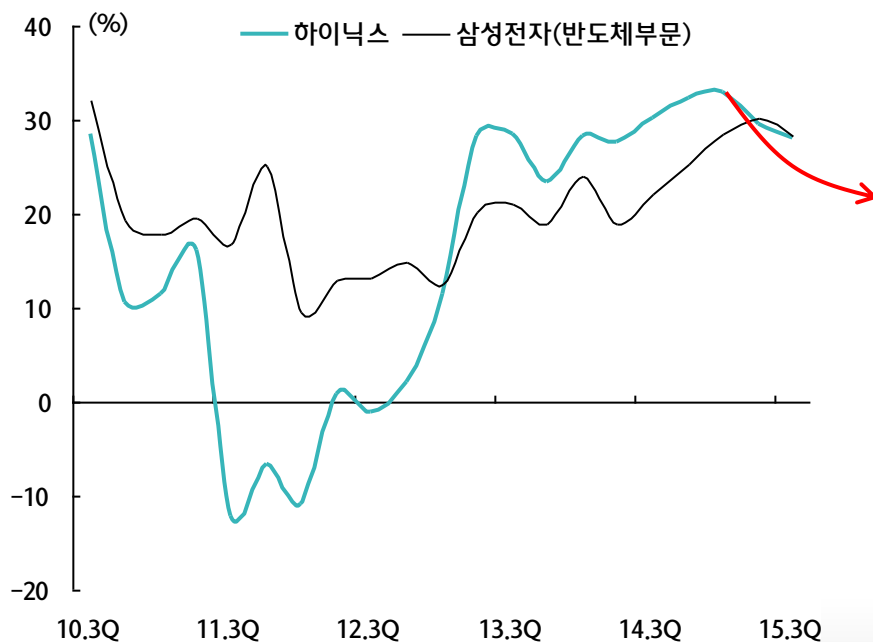
- 광학, 센서, 아나로그 등은 소폭 성장 예상되나 국내 업체들의 주력인 메모리는 마이너스 성장
 - 향후 1~2년간 메모리 수요가 부진해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타 업종 대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겠지만 지난 2년보다는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전망
 - 최근 30%까지 높아졌던 영업이익률이 20%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 존재

종류별 반도체 시장성장률 전망



- 자료 : WSTS

반도체 업체 영업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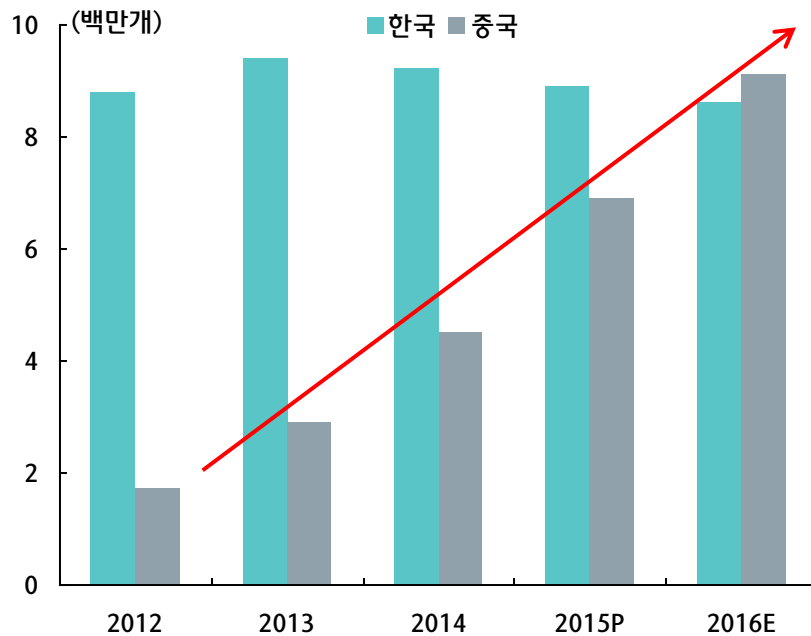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각 사 자료

디스플레이: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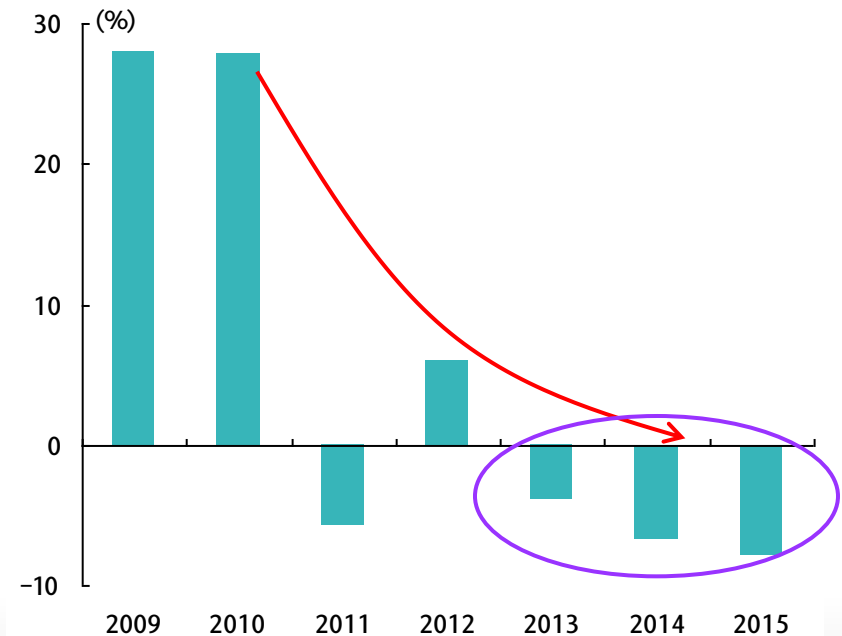
-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적자 상황에서도 증산을 거듭해 공급과잉 심화
 - 국내 업체들도 중국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중국 업체들의 신규 공장 건설 물량이 훨씬 많음
 - 현재 건설 중인 공장들이 차질 없이 완공되면 내년 중 중국의 생산능력이 한국을 앞설 전망
- LCD패널은 수출 비중이 높은데 최근 3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
 - 글로벌 수요 부진, 중국 현지 생산 확대,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
8세대 LCD패널 생산능력 전망



- 자료 : IHS

LCD패널 수출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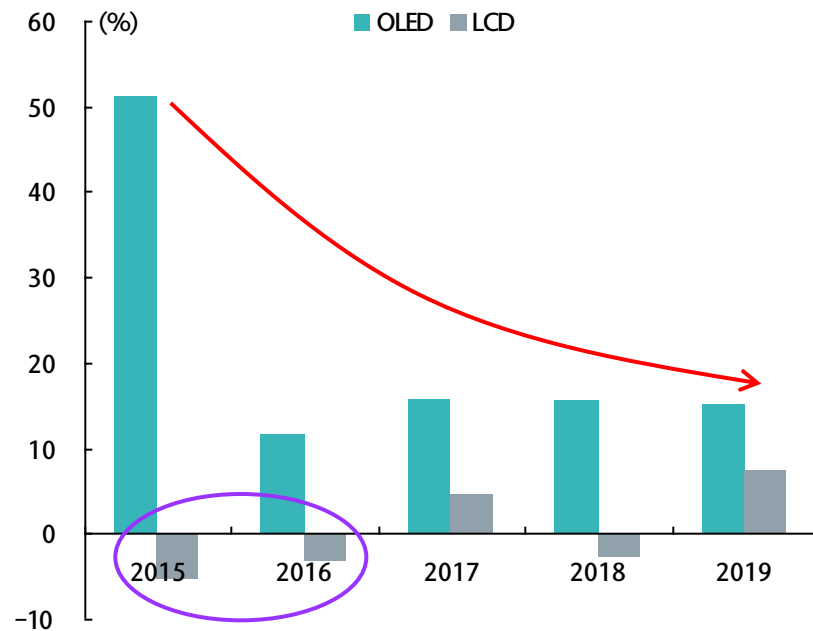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디스플레이: LCD 시장 역성장에 따른 실적 악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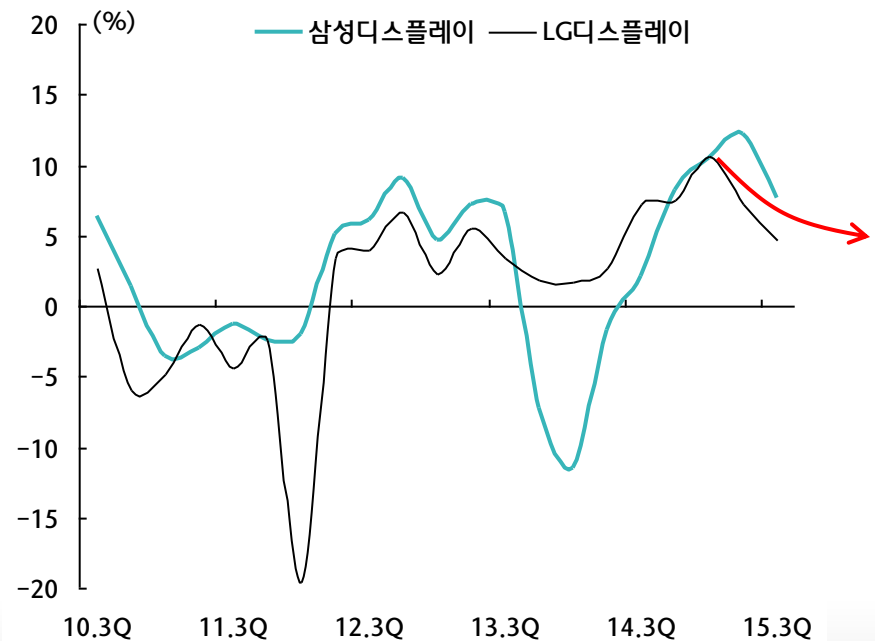
- OLED 시장은 한동안 10% 성장이 가능하나 LCD 시장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
 - 2015년 기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10%에 불과함
 - OLED 시장 역시 2015년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
- 태블릿 시장이 둔화되고 TV 시장은 정체 상태이므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
 - 원가경쟁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의 적자 전환될 가능성은 낮으나 실적 악화는 불가피

디스플레이 시장성장률 전망



- 자료 : IHS

디스플레이 업체 영업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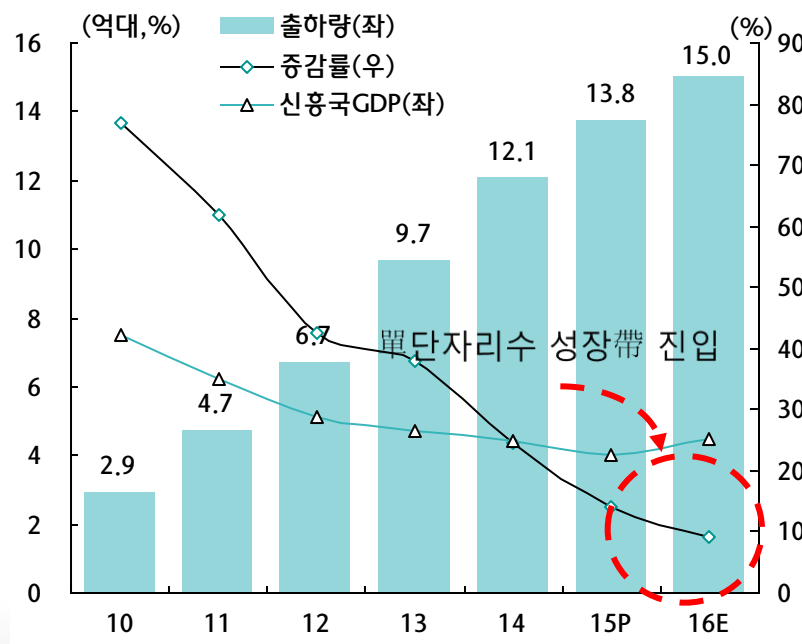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각 사 자료

휴대폰: 신흥국 경기불안과 시장 포화로 본격적 성숙기 진입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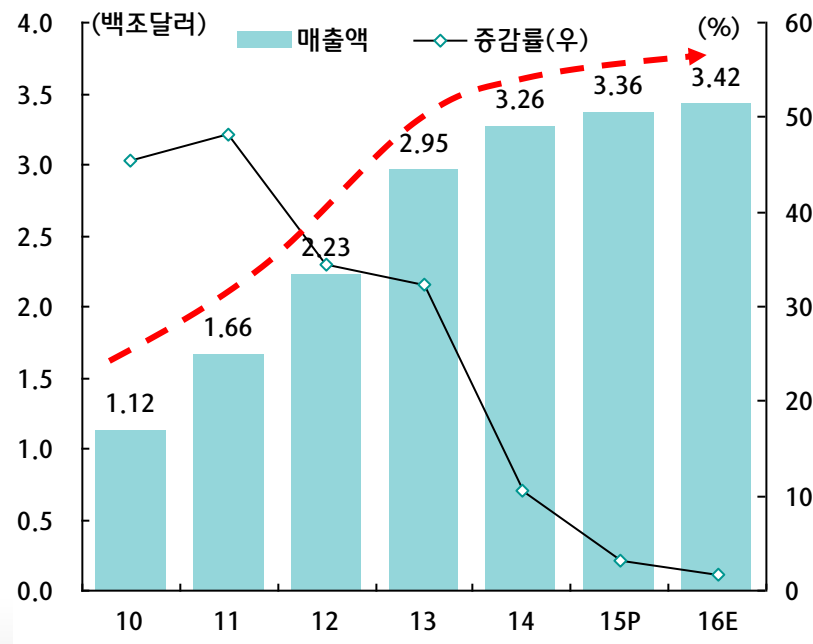
- 신흥국 경기불안과 선진국 시장 포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둔화
 - 유가 하향 기조, 중국 경제 둔화('14년 GDP YoY 6.4%)여파로 신흥국 중심의 수요 성장세 위축
- 출하량 증가율 둔화와 각국 보조금 축소에 따른 프리미엄폰 시장 위축 등 구조적 성숙단계 진입
 - 휴대폰 출하량의 71%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: 성장세 위축 X ASP하락 → 매출액 규모 정체

스마트폰의 본격적 성숙기 진입



- 자료 : 가트너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스마트폰 매출액 성장세 정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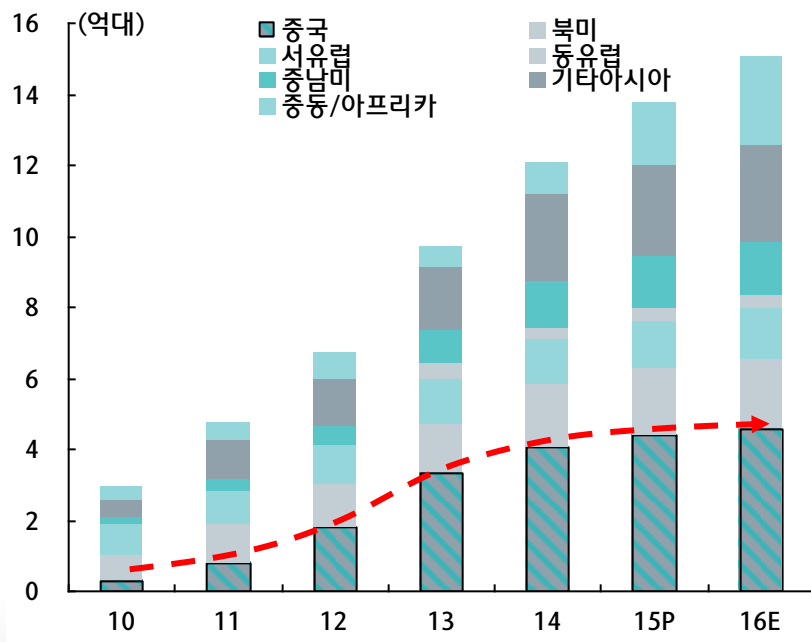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가트너, IDC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휴대폰: 중국시장 위축되나 중국업체의 중위권 주도력 확대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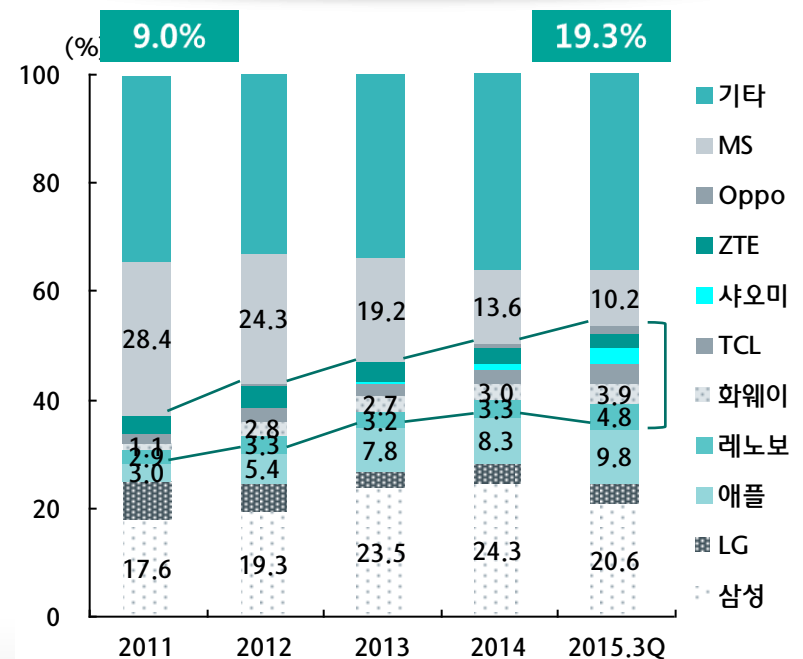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세를 견인하던 중국 경제의 둔화와 높은 스마트폰 침투율이 성장폭 제한
 - '14년 중국 스마트폰 침투율이 '14년 70%를 초과했으며 경기둔화와 보조금 축소로 전세계 수요의 36%에 이르던 신규, 교체 수요가 위축
- 중국업체의 글로벌 진출, 위안화 평가 절하, 보급형 위주의 성장세 등으로 중국업체 영향력 확대
 - 삼성 휴대폰 M/S는 2014년을 고점으로 하락 중이며 LG는 중위권 경쟁에서 고전 중

수요를 견인하던 중국시장의 위축



- 자료 : 가트너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중국업체의 휴대폰 출하량 M/S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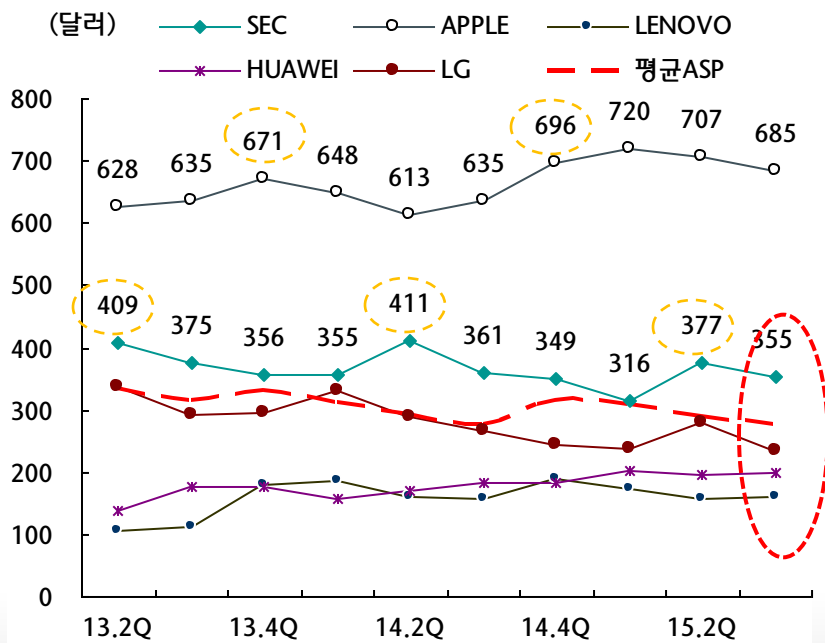
- 주 : 15년은 3Q 까지 누적 출하량 기준

- 자료 : IDC, 블룸버그

휴대폰: 가격·점유율 경쟁심화로 완만한 수익성 하락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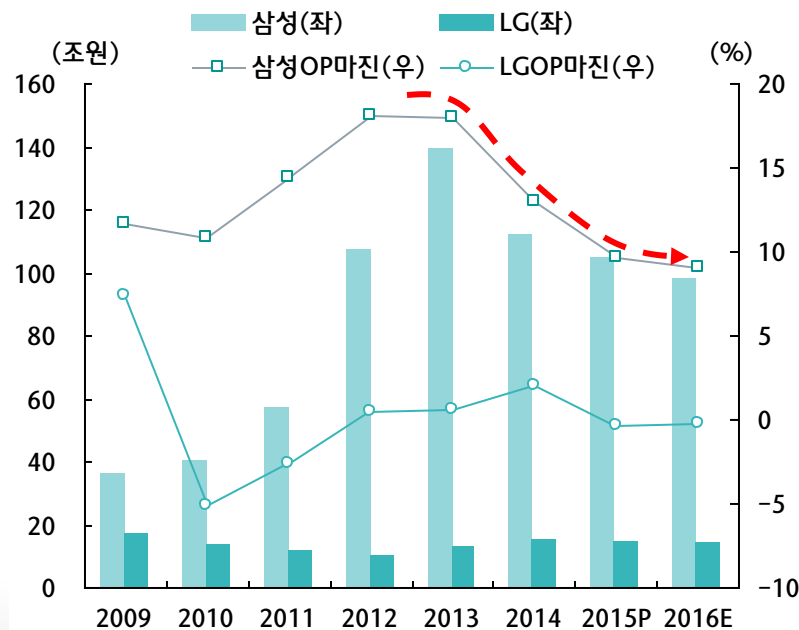
- 애플을 제외하면 스펙 고사양화와 Premium폰 위축으로 중저가 모델 판가 경쟁 지속되며 ASP하락
 - 미국, 일본, 캐나다, 유럽 스마트폰 ASP : 438\$('14) → 423\$('15P) → 413\$('16E)
- 비용구조 개선 노력 중이나 중저가 제품군 로컬업체들과의 가격 및 점유율 경쟁 심화로 수익성 하락
 - 해외생산체제 강화, 비용구조 개선이 예상되나 수익성 하락 추세를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듯

스마트폰 평균판매가(ASP) 추이



- 자료 : IDC, 블룸버그

국내업체 매출액, 영업이익률 전망



- 주 : 삼성전자, LG전자 IM, MC사업부문

- 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, Fn-Guide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자동차: 中 경기둔화, 美 금리인상 등이 2016년 주요 리스크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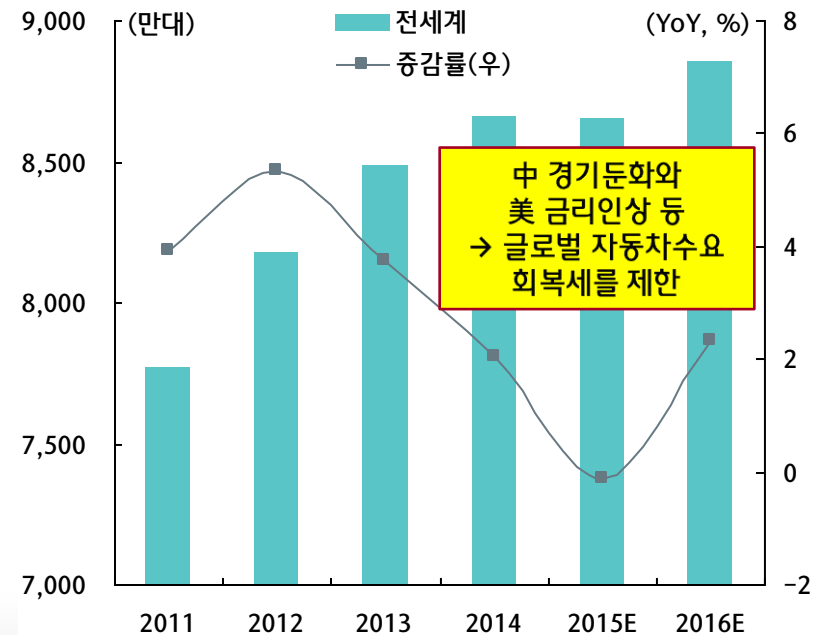
- 중국은 투자효율 저하, 수출부진으로 7%대 성장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, 러시아와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역성장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
- 한편 美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원화가치 약세는 자동차메이커의 수출에 일조하겠지만, 신흥국 자금 유출에 따른 현지통화가치 절하는 원화환산 매출액 감소와 외화 환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

자동차산업의 주요 리스크요인

| 구분 | 주요 영향 점검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中 경기 둔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 정부의 소형차종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10%에서 5%로 인하하는 등 수요진작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동차 수요 회복을 모색 ▪ 그러나 세계 자동차 판매의 23%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 둔화, 경쟁심화는 현대/기아차의 실적 개선에 부담이 됨 |
| 美 금리 인상 (신흥 시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원화가치의 약세를 초래하면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일조 가능 ▪ 다만, 신흥국 자금유출에 따른 현지 통화 가치 절하는 원화환산 매출액 감소 및 외화 환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|
| 원자재 가격 약세 (신흥 시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브라질은 원자재가격 약세에 따른 경기둔화,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졌고, 통화가치 하락으로 자동차시장이 크게 위축 ▪ 원유/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75%,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도 유가하락과 경제제재로 역성장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위축 |

- 자료 :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글로벌 자동차수요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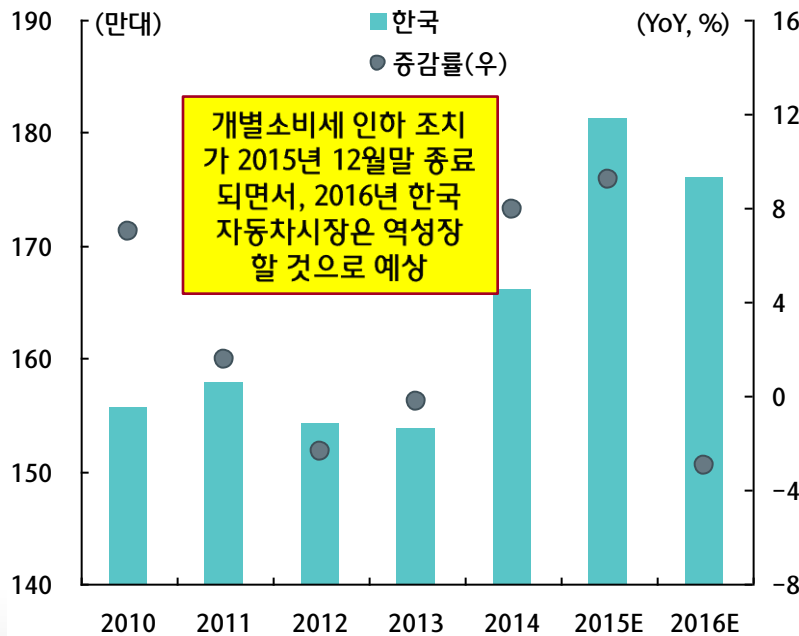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WardsAuto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자동차: 수요부진, 경쟁심화로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은 기대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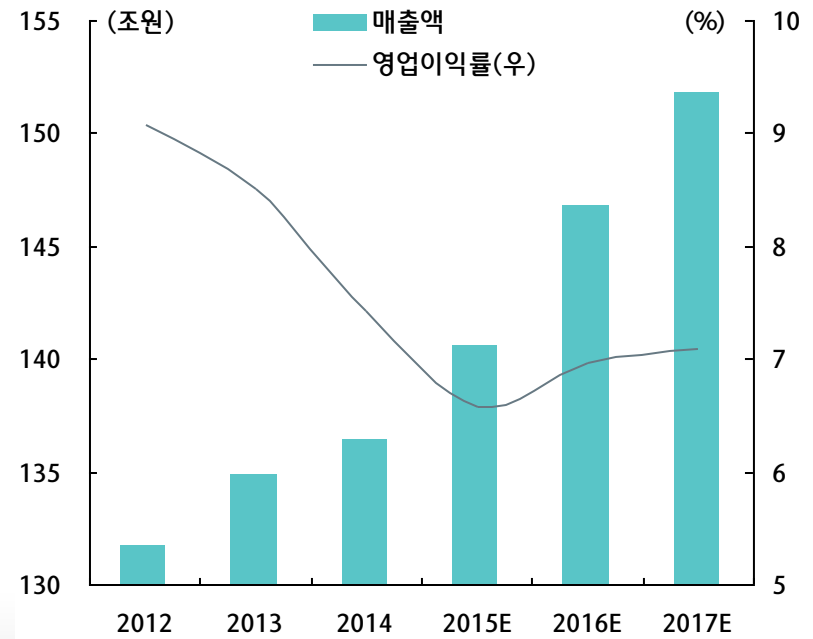
- 2016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국내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, 유럽 등 선진시장의 양호한 수요 증가와 러시아,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감소폭 완화에 힘입어 2015년의 부진에서 회복 모색
- 시장별 자동차 수요는 북미, 유럽, 그리고 중국은 4~5%, 러시아 -15%, 브라질 -10% 전망
- 현대/기아차는 가격 인하, SUV 신차 투입, 중국 정부의 수요 진작정책 등에도 불구하고, 신흥시장의 수요부진, 경쟁심화 등이 실적에 부담이 되면서,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한국 자동차 수요 전망



-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현대/기아차 합산 실적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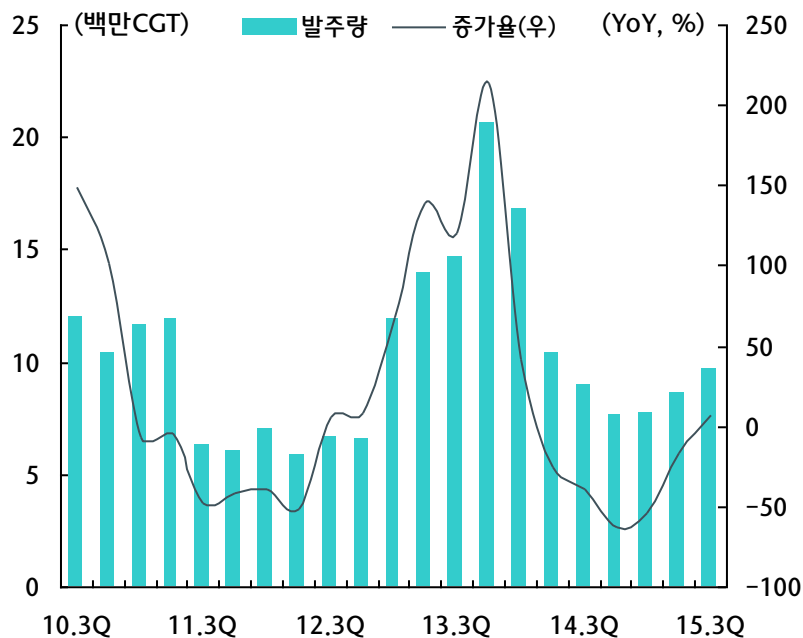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현대차, 기아차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조선: 상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 모두 수주 부진 지속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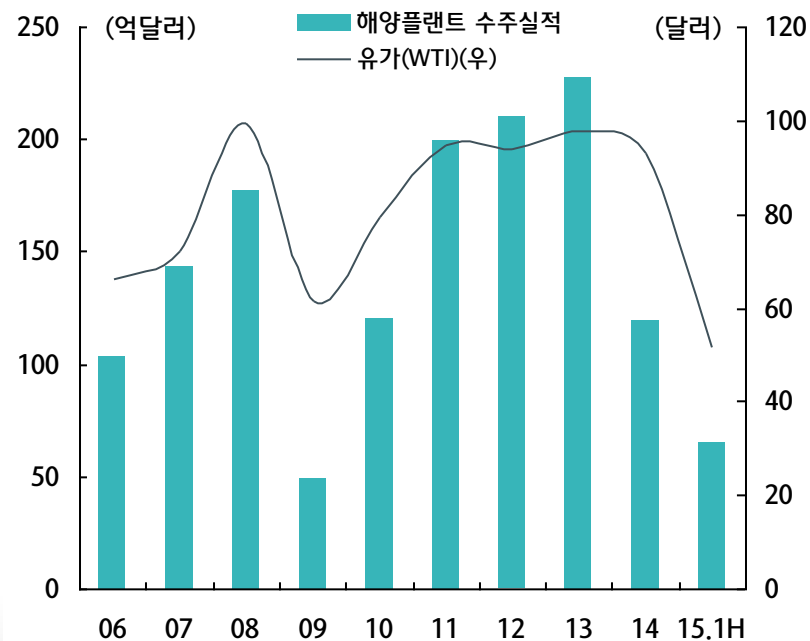
- 선박 공급 과잉 지속 및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상선 수주 부진 회복 난망
 - '15년 3Q 누적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.1% 하락한 2천6백만CGT 기록
- 국제유가 반등은 예상되나, 그 폭이 제한적이어서 해양플랜트 발주량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
 - 과거 10년 분석 결과, 해양플랜트 수주와 유가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음 (Correlation 0.86)

전 세계 선박 발주량



- 자료 : Clarkson

해양플랜트 수주실적과 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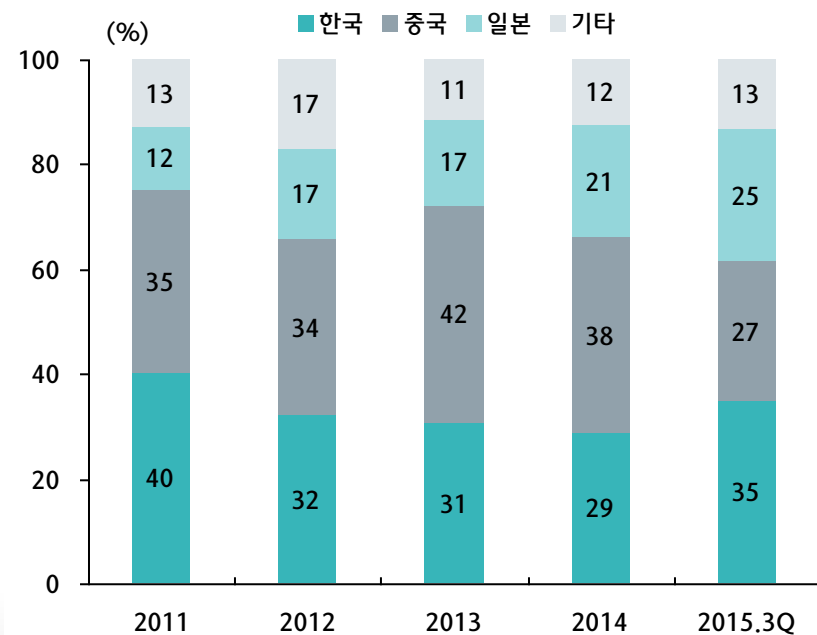


- 주 : 수주실적은 국내 Big 3 조선사 합계 - 자료 : 각 사 자료, EIA

조선: 한·중·일 조선소 간의 수주 경쟁 더욱 심화 우려

- 선박 발주 침체로 한·중·일 조선소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조선소는 선전 중
 - '15.3Q 누적 기준 한국 조선소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선 지속 발주로 M/S 1위 기록(35%)
- '16년은 엔저 지속 및 조선소의 수주잔량 감소로 한·중·일 조선소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
 - 일본 조선소는 엔저 효과로 M/S 25%('15년 3Q 누적 기준)를 기록하여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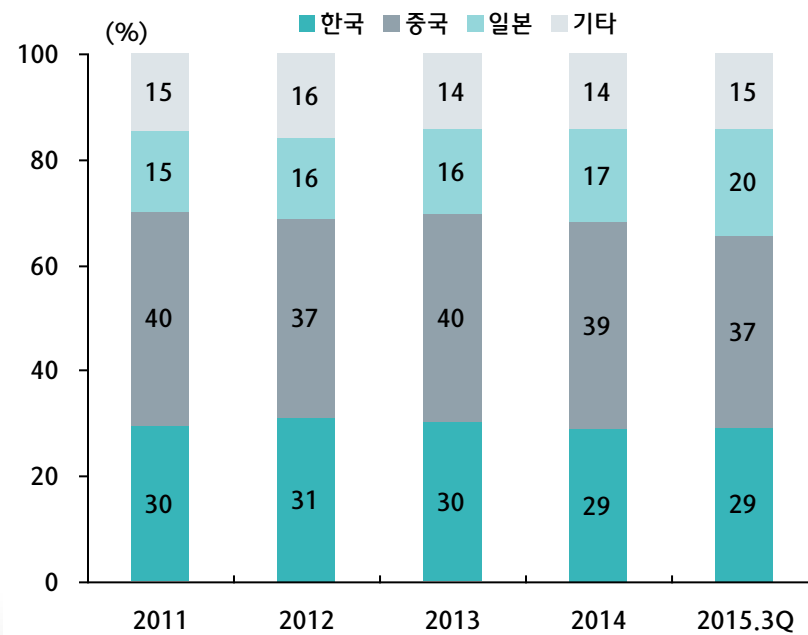
한·중·일 수주량 비교



- 주 : 2015년은 3분기 누적

- 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잔량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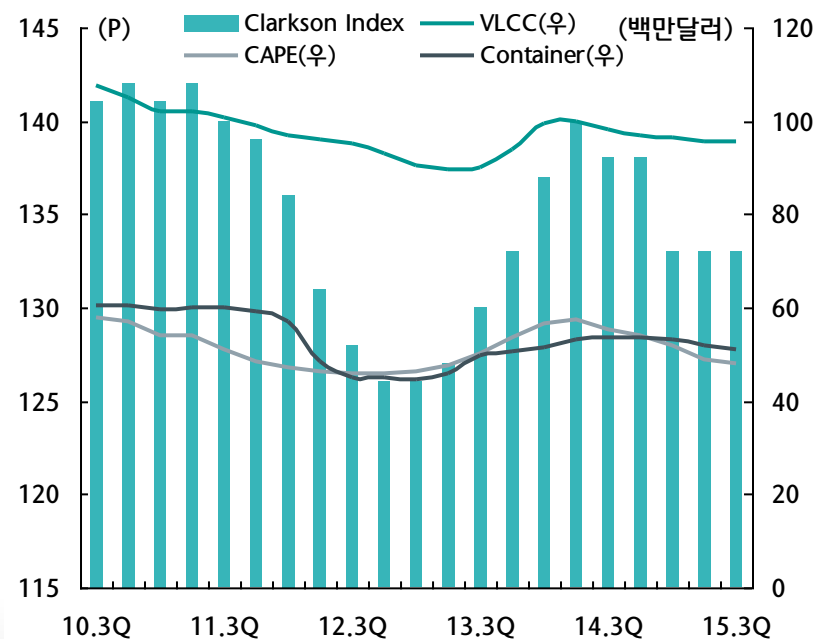
- 주 : 2015년은 3분기 누적

- 자료 : Clarkson

조선: 수익성 일부 개선 가능하나, 해양플랜트 우려 지속

- 상선 부문은 '14년 수주 물량의 본격적 건조로 '15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 - Clarkson 신조선가는 '13년 1분기 126p 기록 후 '14년 2분기 140p까지 상승
- '14~'15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해양플랜트 부문은 여전히 높은 수주잔고로 잠재 부실 가능성 有
 - 수주잔고 : 현대중공업 210억 달러, 삼성중공업 242억 달러, 대우조선해양 200억 달러 ('15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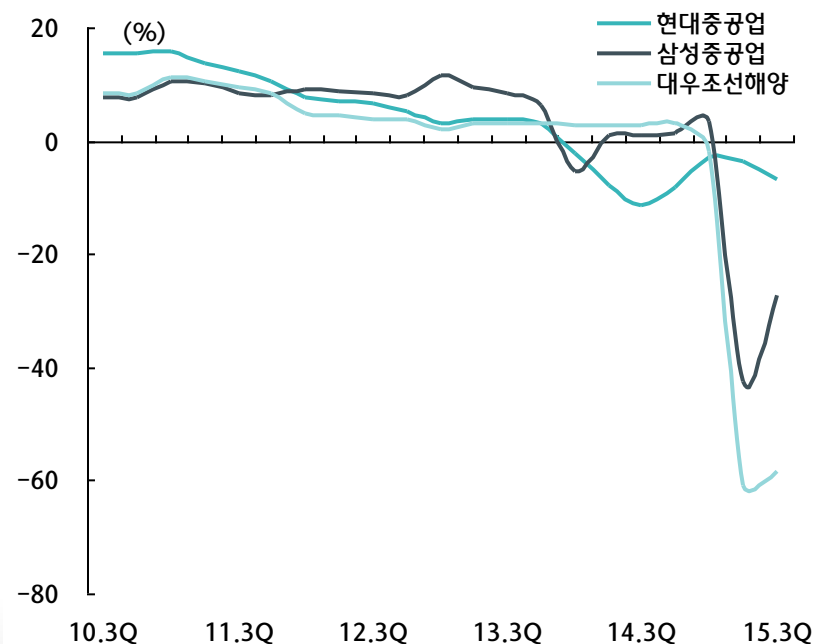
Clarkson 신조선가



- 주 : Container는 4,800TEU 기준

- 자료 : Clarkson

Big 3 조선사 영업이익률



- 주 : 별도재무제표 기준

- 자료 : Kis-Value

기계: 제조업 경기, 환율, 설비투자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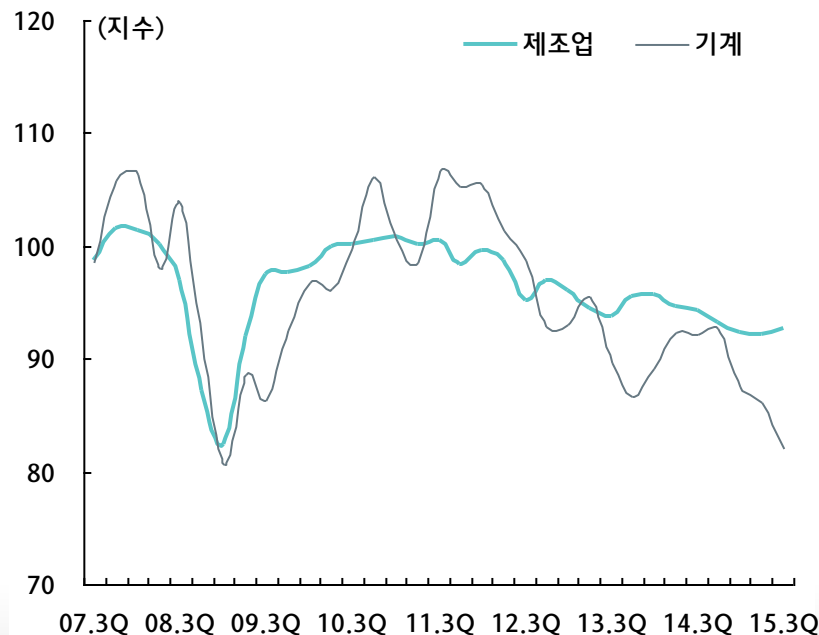
- 당초 기대했던 제조업의 경기회복 탄력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, 美 금리 인상 모색에 따른 외자 의존성이 큰 국내 시장의 대외 취약성 부각은 기계 업종의 경기 회복에 부정적
- 경기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, 그리고 엔저의 피로감이 체내에 누적되면서 불거진 수출 부진 장기화 등은 국내 기계 업종의 가동률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

기계산업의 주요 리스크요인

| 구분 | 주요 영향 점검 |
|---------|---|
| 제조업 경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당초 기대했던 자동차산업의 경기회복 탄력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, 조선, 철강 역시 회복세가 제한적이고, IT제조 및 서비스, 건설 등 여타 산업들도 성장 둔화가 뚜렷 ▪ 특히, 공작기계, 건설광산기계의 경우 주 수요산업인 자동차, 건설 산업 경기의 부침이 해당 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 |
| 환율 (엔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美 기준금리 인상 모색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 재편과정에서 외자 의존성이 높은 한국시장의 대외 취약성이 부각되는 한편, 원화가치 약세는 수출업체에는 호조 ▪ 다만 2012년 말 시작된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한 엔저의 피로감이 체내에 누적되면서 수출동력이 크게 약화 |
| 설비 투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, G2 리스크의 충격이 국내 경기회복세를 훼손하며,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움직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짐 ▪ 통상 설비투자의 감소는 기계업체의 수주 감소로 이어지고, 3~4개월 후행하여 매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|

- 자료 :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국내 제조업 가동률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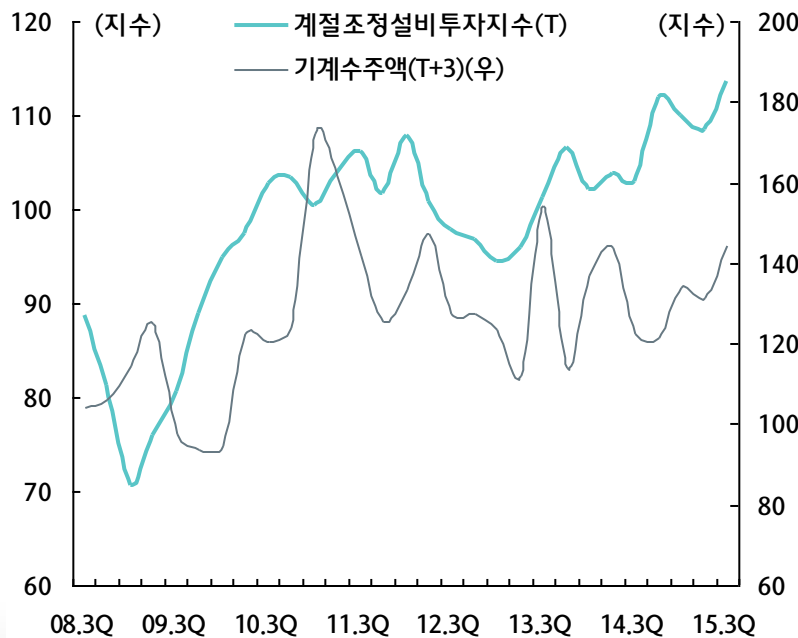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한국은행

기계: 수요산업 부진, 엔저, 투자부진으로 실적개선은 기대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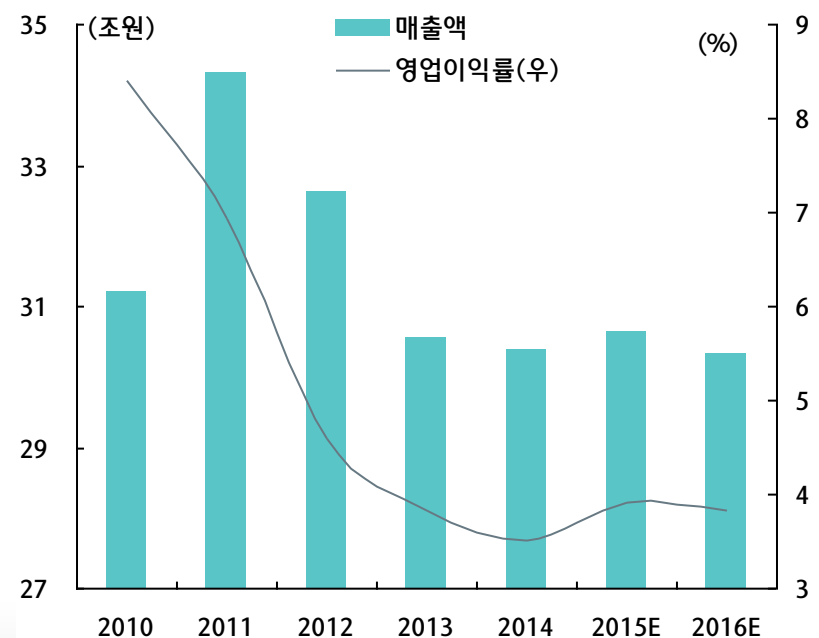
-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, 연준의 금리인상 모색과 중국 성장 둔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계업종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2014년 4/4분기 이후 견조한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기계수주액도 늘어나고 있음. 다만, 엔저에 따른 평가하락으로 매출이 정체되면서, 영업이익률은 전년수준인 3% 후반에 그칠 전망

국내 기계수주액 동향 및 전망



- 주 : 계절조정설비투자지수를 기준으로 T+3 기계수주액을 같이 그림
- 자료 : 통계청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국내 기계산업의 실적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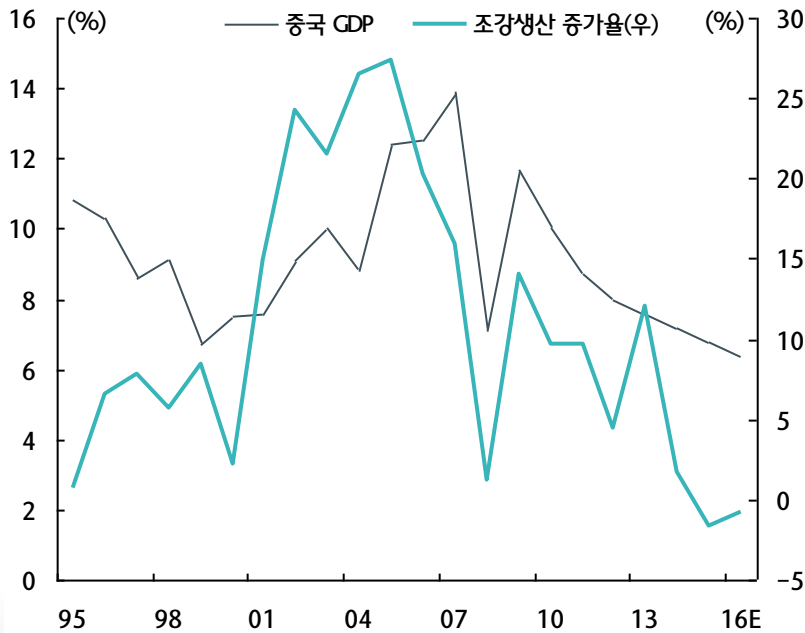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Kis-Value, 상장 109개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철강: 중국의 성장을 둔화로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 가속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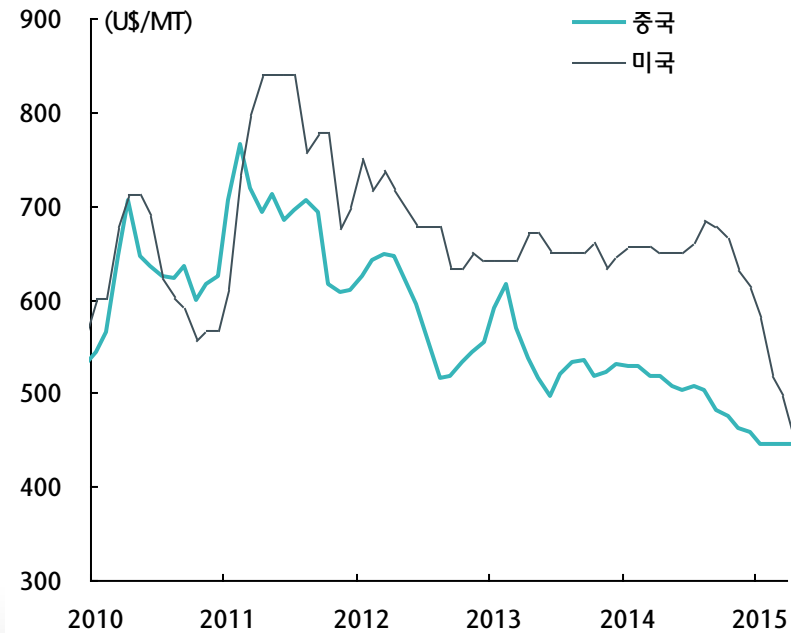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철강수요의 1/2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철강 수요는 침체국면에 진입
 - 2015년 이후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둔화와 함께 조강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
- 글로벌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환경 하에서 철강가격은 지역에 관계없이 약세 기조를 시현
 - 글로벌 철강산업 가동률이 70% 내외를 기록하면서 철강 가격은 추세적 약세를 지속할 전망

중국 경제와 조강생산 증가율



- 자료 : Thomson Reuters Datastream

국제 철강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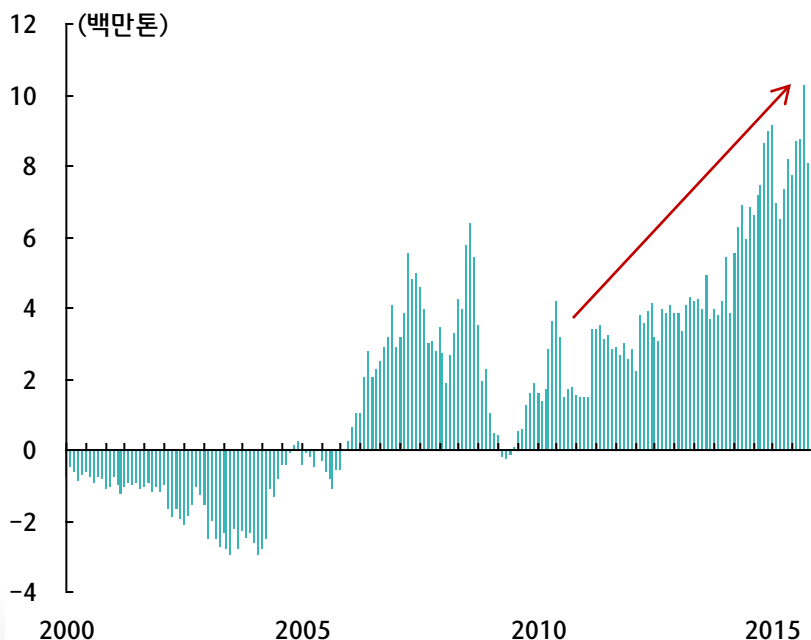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Bloomberg

철강: 중국 철강업계의 저가 제품 수출 전략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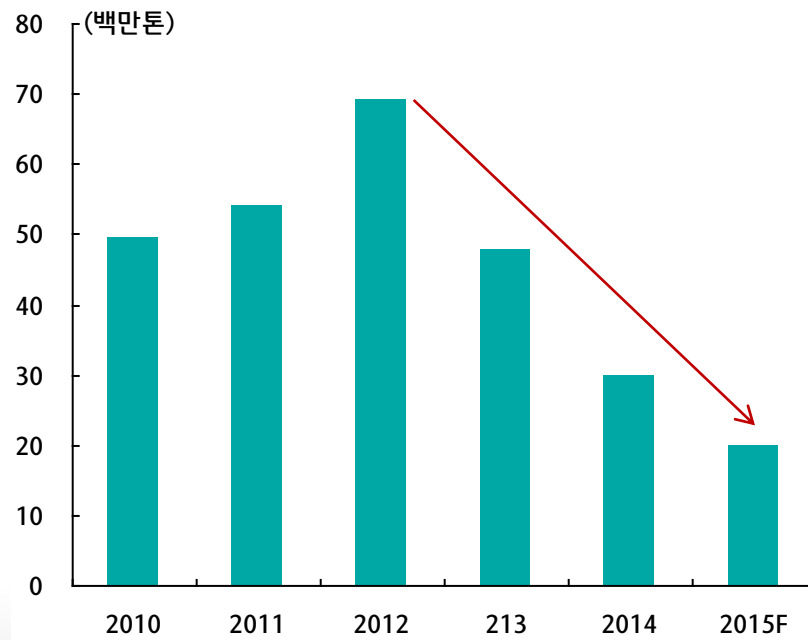
- 중국 내 소비 부진은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확대를 야기하며, 이는 동북아 철강시장 수급에 부담
 -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중국의 강재 순수출량이 2014~15년 급증하였고, 2016년 확대 예상
- 한편 中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철강산업의 고정 투자가 감소하고 시장 효율성이 소폭 개선
 - 그러나 단기간 내 효과는 미미하며,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의 체질개선은 한국시장에 위협 요인

중국 강재 순수출량 추이



- 자료 : Thomson Reuters Datastream

中 신규 제선능력 증가량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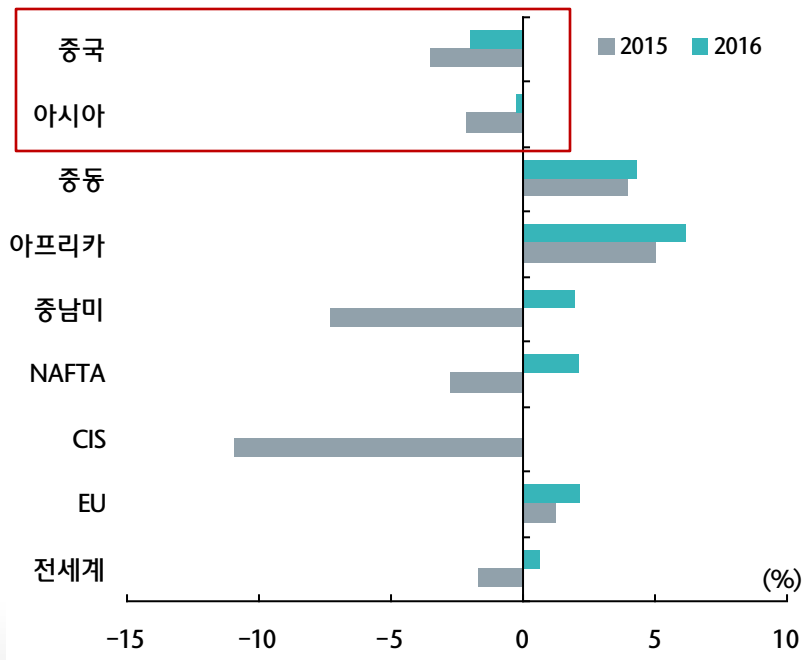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업계자료 종합

철강: 국내외 철강수요는 1% 미만의 소폭 회복에 그칠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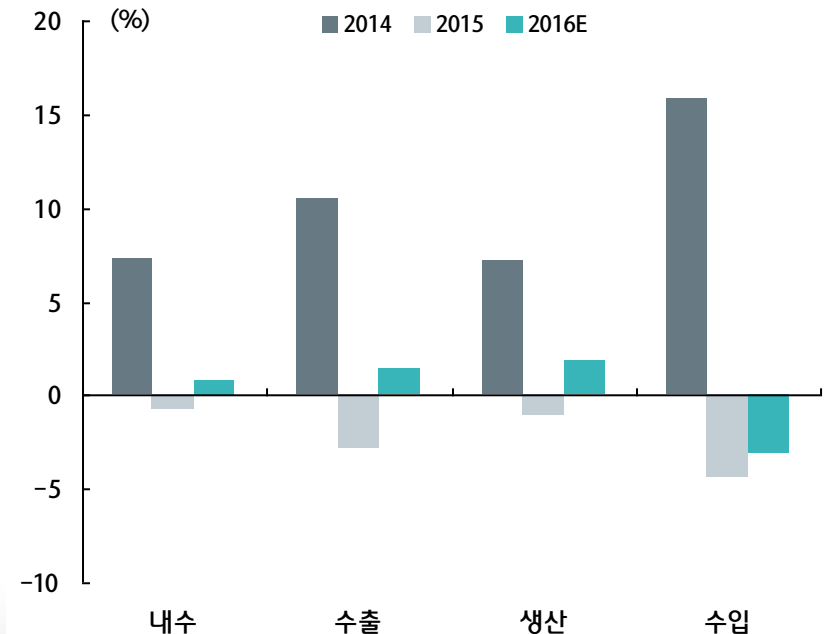
- 2016년 선진국 저성장 기조, 신흥국의 성장건인력 약화로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은 미미할 전망
 - WSA(2015년 11월)는 2016년 전체 철강수요를 전년대비 0.7% 증가한 15.2억 톤으로 예상
- 국내 시장 또한 건설, 조선, 자동차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1% 내외의 소폭 성장 예상
 - 2016년 국내 철강재 수급(전년대비 성장률) : 내수 0.8%, 수출 1.4%, 생산 1.9%, 수입 -3.1%

2016년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



- 자료 : World Steel Association

한국 철강수급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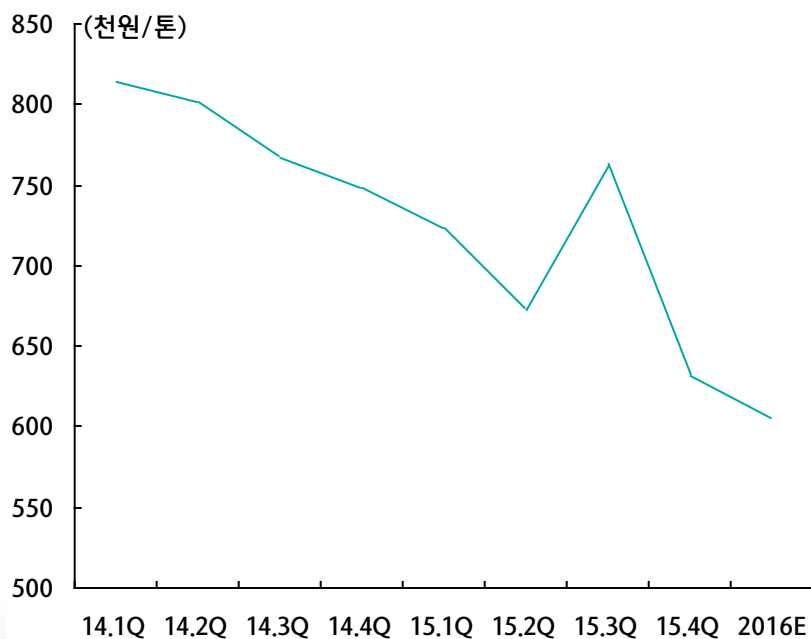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한국철강협회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철강: 외형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수익률은 소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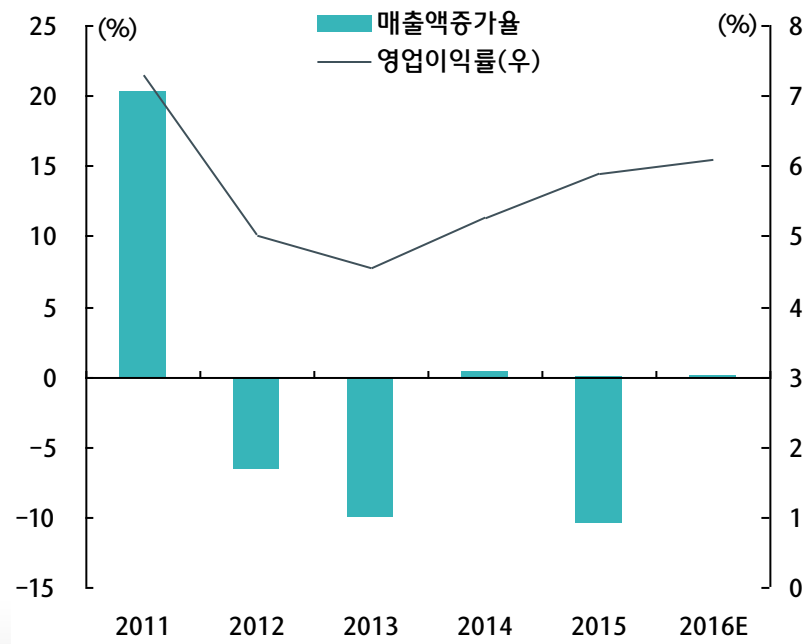
- 국내 철강시장의 양적 성장이 1%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체의 매출은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
 -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과 원재료 가격 약세로 수요처의 제품 단가 인하 압력이 존재
- 다만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, 석탄, 철스크랩 등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익률은 소폭 상승
 - 2016년 1차 철강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0.2%p 상승한 6.1%를 기록할 전망

국내 철강사의 제품 톤당 원가 추이



- 주: POSCO

국내 철강업체 실적 전망



- 주: 외감 이상 1차 철강제조업체 기준

- 자료: Kis-Value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비철금속: 중국 경제 둔화로 글로벌 비철금속 수요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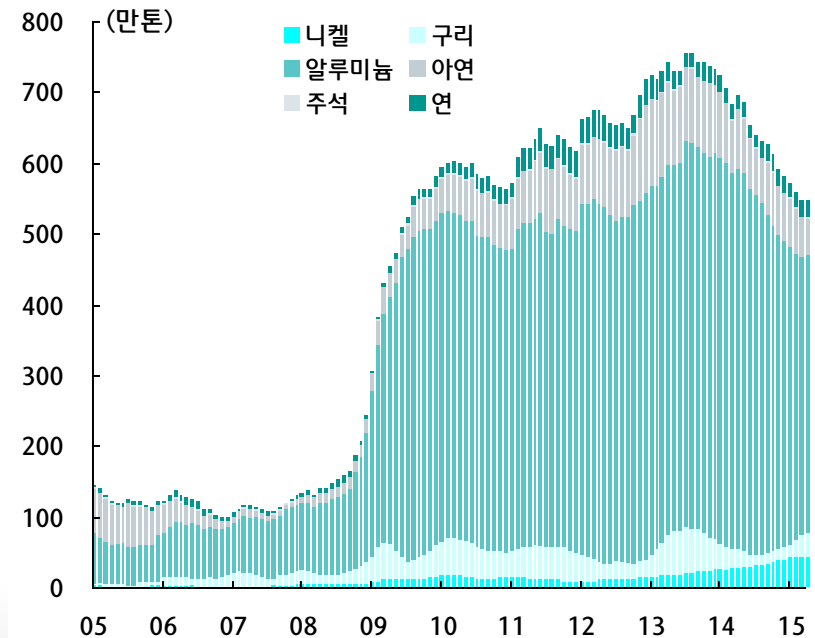
-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% 미만으로 둔화되면서 글로벌 비철금속의 실수요 감소 예상
 - 글로벌 비철금속의 총수요 중 중국 수요가 1/2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핵심 변수
- 이와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재고가 동반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 추세상 여전히 높은 수준
 - 2015년 말 현재 6대 비철금속의 LME 재고 수준은 금융위기 전의 2.5배 정도

중국 비철금속 수요 증가율 전망



- 자료 : BGRIMM Lilan Consulting

LME 비철금속 재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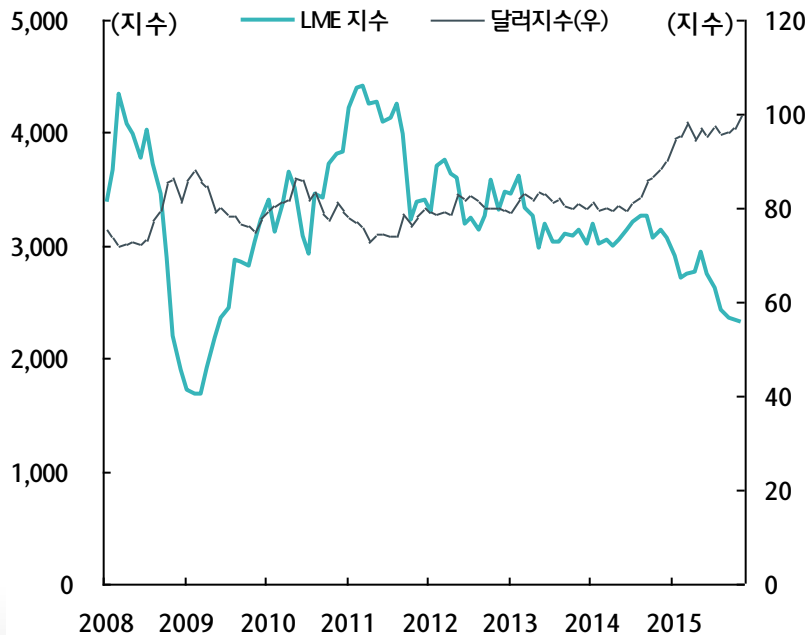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Thomson Reuters Datastream

비철금속: 투기수요 부진하여 비철금속 가격 추가 하락 가늠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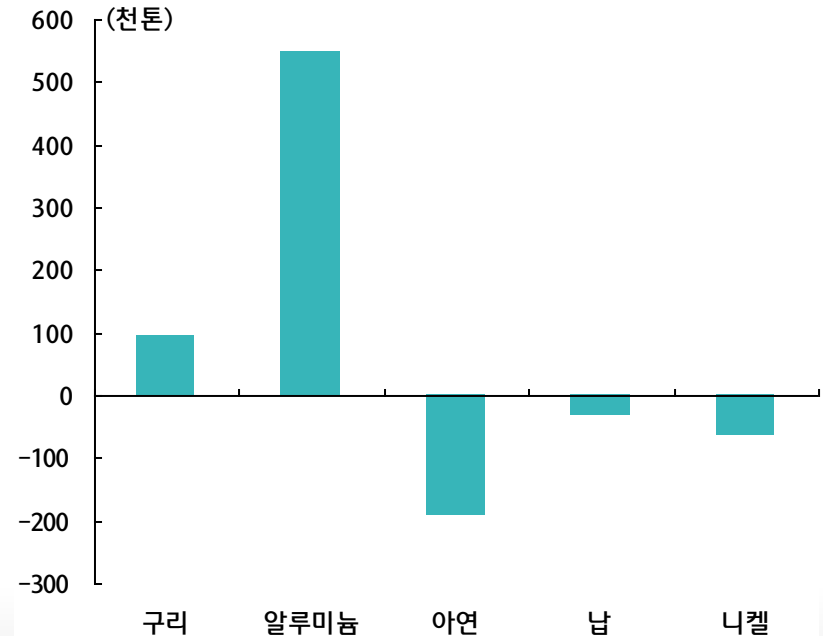
- 2016년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되면서 비철금속에 대한 투기수요가 저조할 전망
 - 2015년 이후 달러지수 상승과 함께 LME 가격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며, 2016년 더욱 심화 예상
- 실수요 및 투기수요의 동반 부진으로 비철금속 가격 약세가 예상되나 품목별로 다소 차별화 예상
 - 공급과잉인 구리, 알루미늄의 가격 하락폭이 크며, 수요 우위인 아연, 니켈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

달러가치와 LME지수 추이



- 자료 : Thomson Reuters Datastream, Bloomberg

2016년 비철금속 품목별 공급과잉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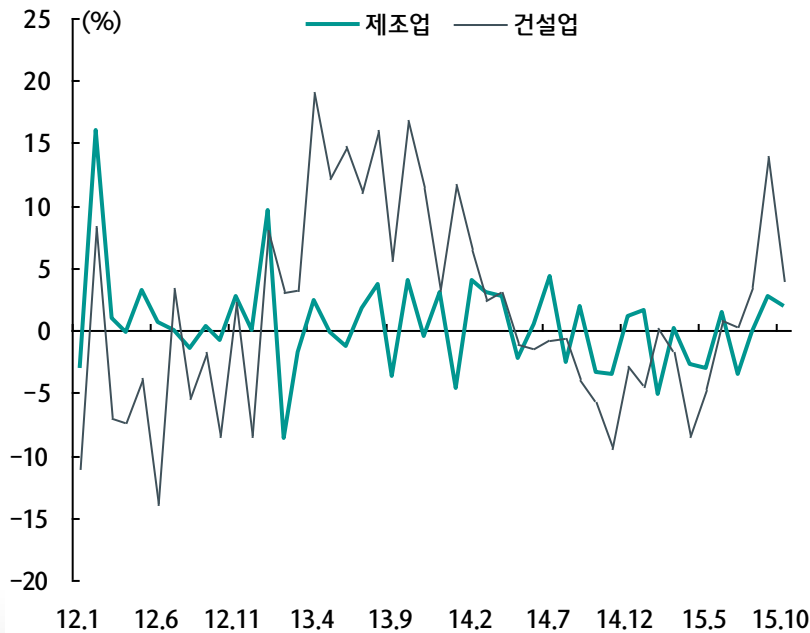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업계 자료 종합

비철금속: 국내 전방산업 부진하여 수요 회복 미미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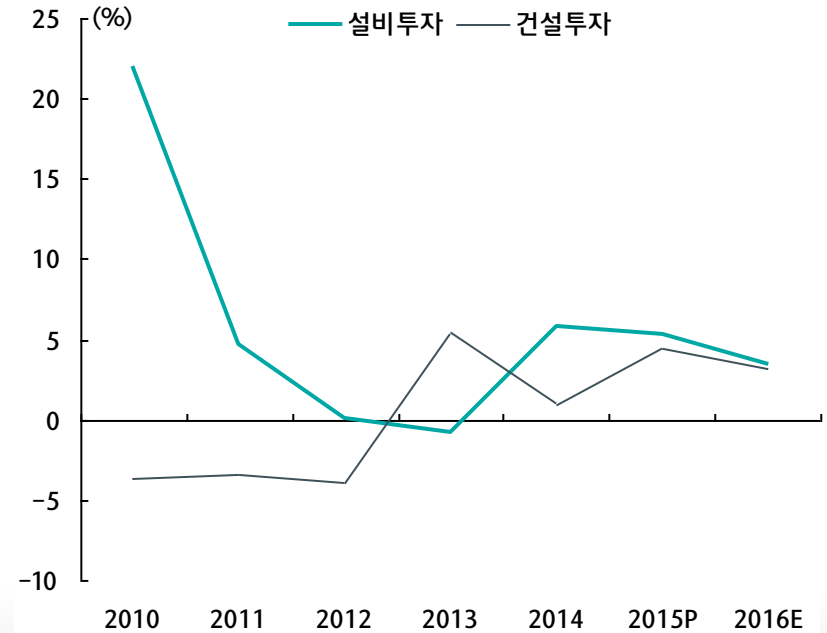
- 2016년 국내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철금속 수요 회복 미미할 전망
 -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 형태로 전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수요가 산업 경기에 연동
- 전방산업인 자동차, 기계, 조선 등의 제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경기 회복도 미진
 - 2016년 자동차 및 기계 내수 정체, SOC 예산 삭감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, 조선 수주 감소 예상

국내 주요 수요산업 생산지수 추이



- 자료 : 한국은행

국내 설비 및 건설 투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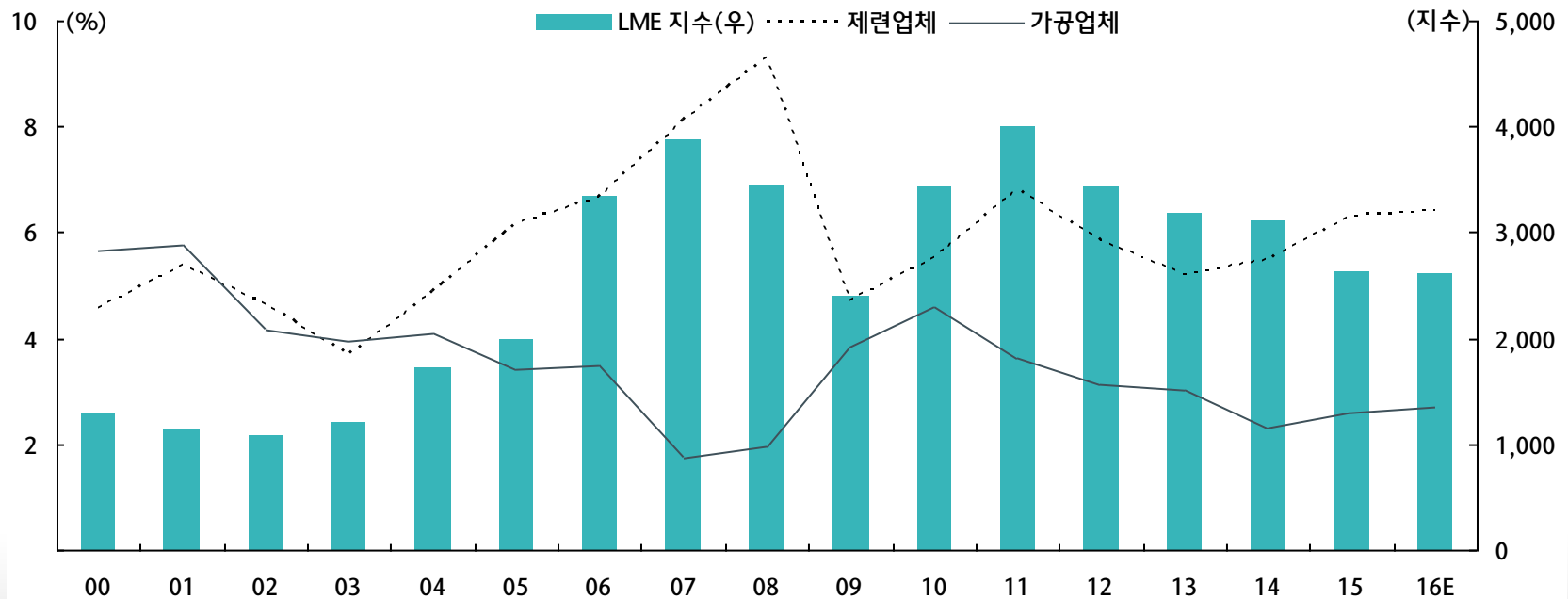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한국은행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비철금속: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며 업체별 부익부 빈익빈 심화

- 2016년 국내외 수요산업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비철금속 업체의 시장 성장은 제한될 전망
 - 다만, 비철금속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업체의 경우 원가율 안정으로 수익률은 소폭 회복
- 제련업체의 경우 리딩기업과 그 외 중소 업체간의 실적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한 해 예상
 - 독보적 Power를 겸비한 고려아연은 공정합리화, 부수수익 등으로 불황기 실적 방어가 가능

국내 비철금속 업체의 수익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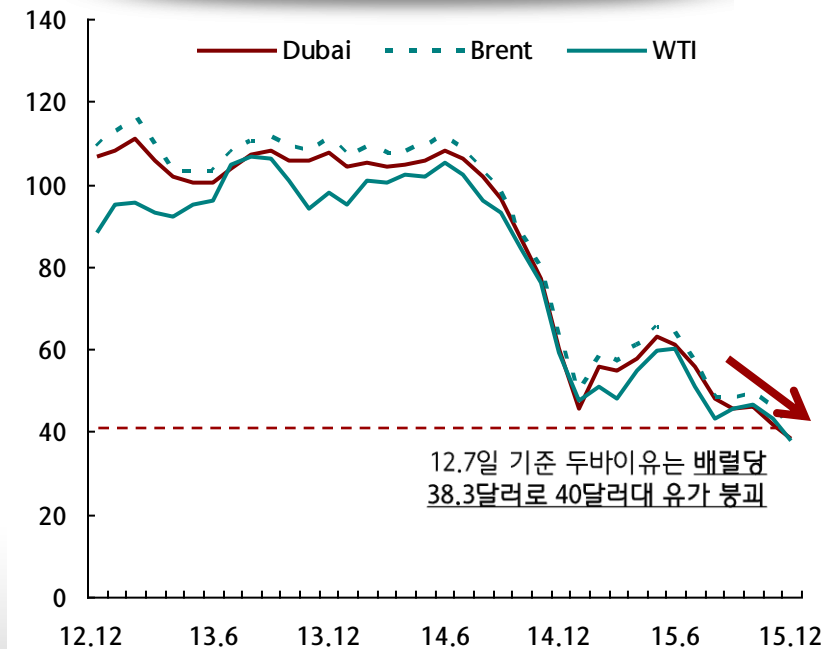
- 자료 : Kis-Value, Thomson Reuters Datastream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정유: 2016년 국제유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

- OPEC 생산목표 감축 합의 불발 및 이란 원유 증산 계획 발표로 유가 하락 가속화
 - OPEC(12.4) 감산합의 실패와 이란 원유 수출 2배 증산계획 발표('16년 2Q 이후 수출 예상*)
- 12월 연준 금리인상이 유력해짐에 따라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유가 하방 압력
 - 국제 원유시장은 달러화 거래로 달러가치 상승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
- 단, 美 원유재고는 '15년 급증 이후 '16년부터 감소할 전망으로 유가급락을 저지시키는 요인
 - '15년 원유시추리그 수가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 감소로 '16년 생산은 감소 예상

* IEA 2015년 11월 전망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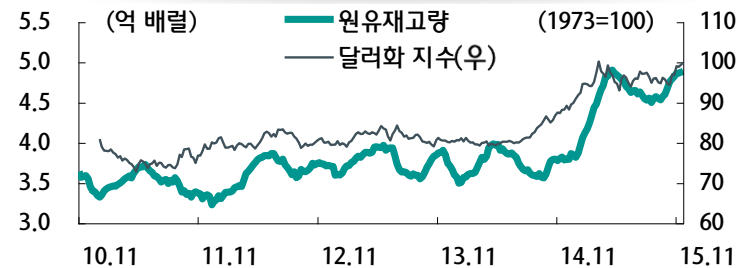
국제 유가 추이



- 자료 : 한국석유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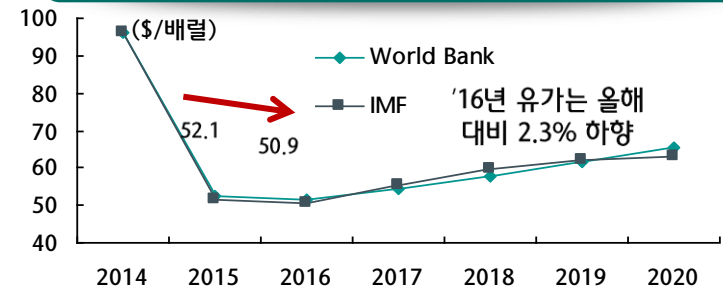
35

美 원유재고 증가 및 달러 강세



- 자료 : EIA, Bloomberg

국제 유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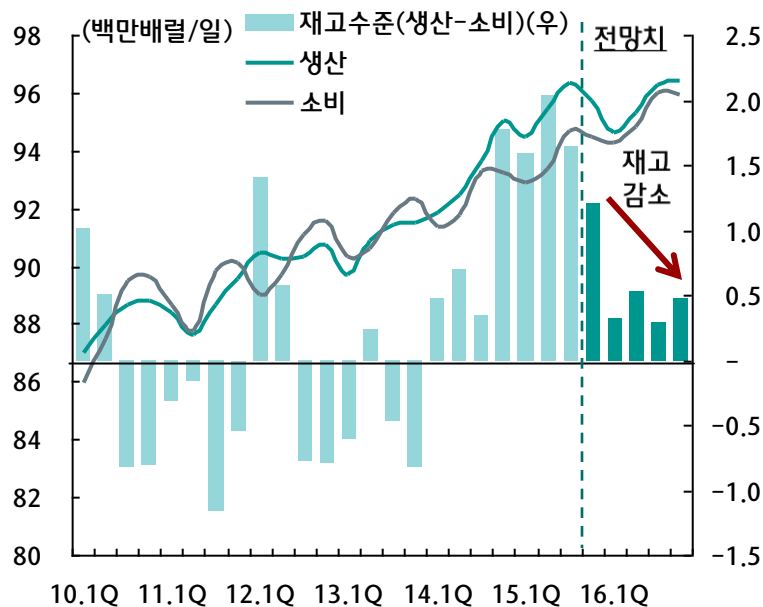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World Bank(2015.10), IMF(2015.10) WTI, Brent, Dubai 평균

정유: 2016년 전세계 원유 수급은 소폭 개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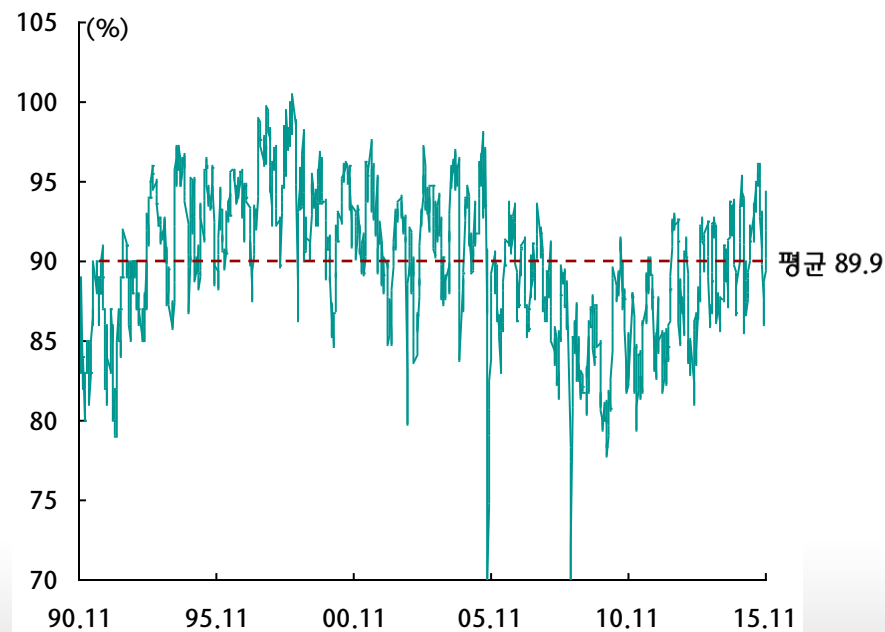
- '16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분이 생산 증가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(EIA 전망)
 - '16년 수요증가분은 일평균 141만 배럴이나, 생산 증분은 18만 배럴로 상당량의 재고 감소 전망
- 전세계 석유 정제설비 약 20%를 차지하는 미국 설비가동률은 '15년 현재 고점으로(91.3%) '16년 가동률은 유지 또는 소폭 하향세가 예상
 - '11년 이후 설비 가동률 지속 증가: 85.4%('11)→ 87.7%('12)→ 88.1%('13)→ 90.1%('14)

전세계 원유 생산 및 소비



- 자료 : EIA('15.11)

미국 정제설비 가동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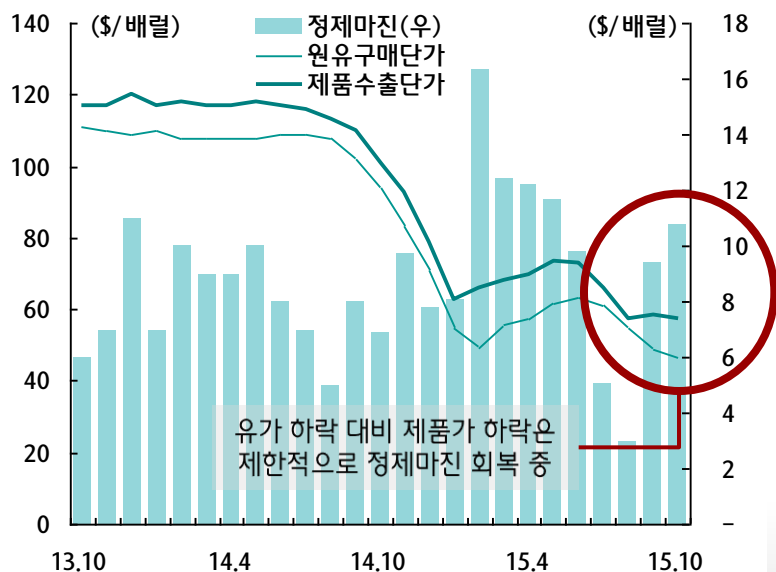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EIA('15.11)

정유: 국내 제품 생산 확대와 정제마진 회복세 지속 전망

- '16년 유가 급락 시 정유업계의 재고 평가손실이 우려되나, 글로벌 수급 개선에 의한 제품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 안정기조 하에서 정유사 정제 마진율은 높게 유지될 전망
 - '15.1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40달러 미만으로 하락 중, '16년 1분기 재고평가손실 대비 필요
- 또한 2016년에도 내수용 제품 소비 증가 및 산업용 제품(납사 등)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여겨져 매출은 가격 인하 대비 수요 증가가 우세하여 매출액은 소폭 상승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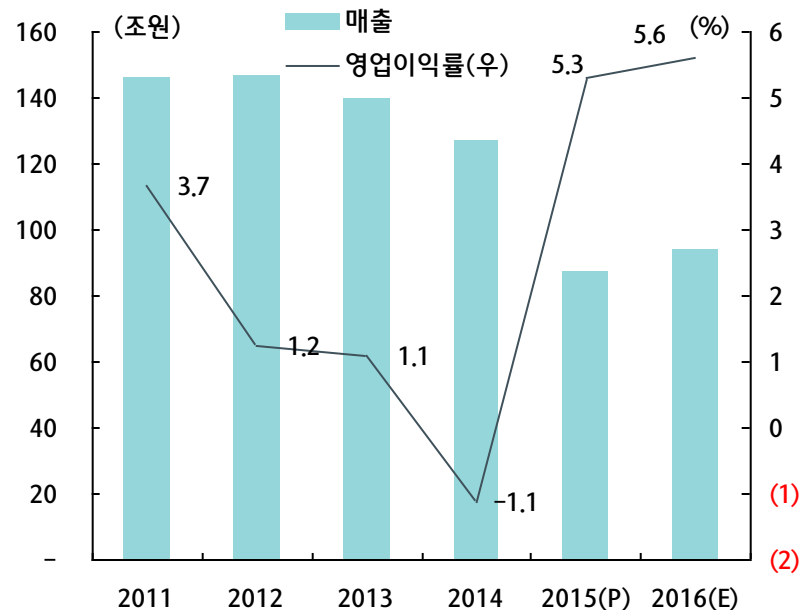
국내 정제마진 추이



- 자료 : Petronet

- 주 : 정제마진 = 제품수출단가 - 원유구매단가

정유사 합산 실적 전망



- 자료 : Kis-Value, 에스케이에너지, GS칼텍스, S-oil, 현대오일뱅크 합산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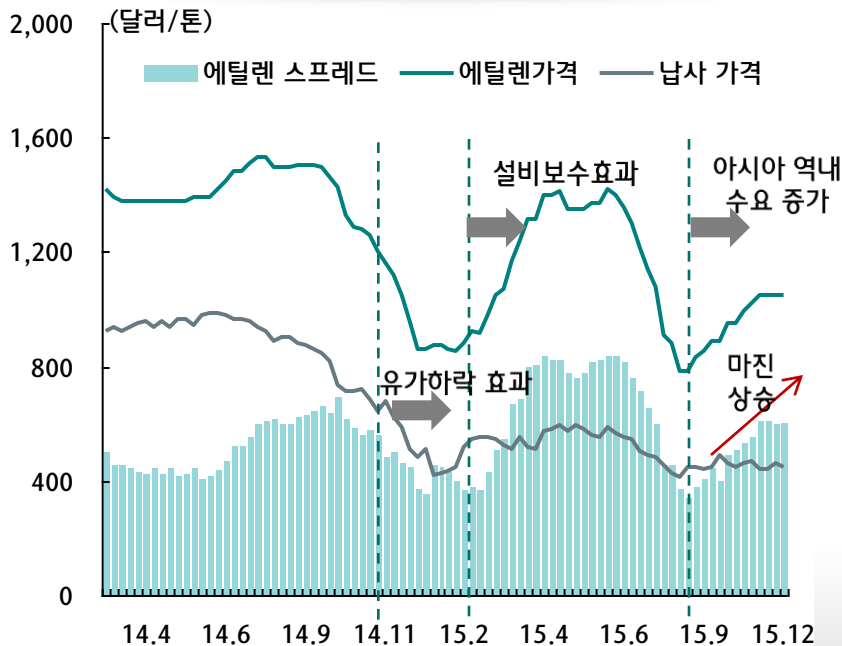
석유화학: 에틸렌 수급 밸런스는 안정적으로 유지 전망

- 국내 2015년 NCC 업체들의 대규모 정기보수 등 물량 조절을 통한 판매가격 상승 및 저유가 효과에 의한 낮은 원재료(납사)가격 부담으로 수익성 상승 실현
- 또한, 중국에서 대규모로 예정된 석탄화학설비(CTO*) 증설이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로 지연되면서 에틸렌의 아시아 역내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
 - NCC 납사 가격이 배럴당 54달러(톤당 400달러)이면 CTO와 가격경쟁력 발생**

* Coal to Olefin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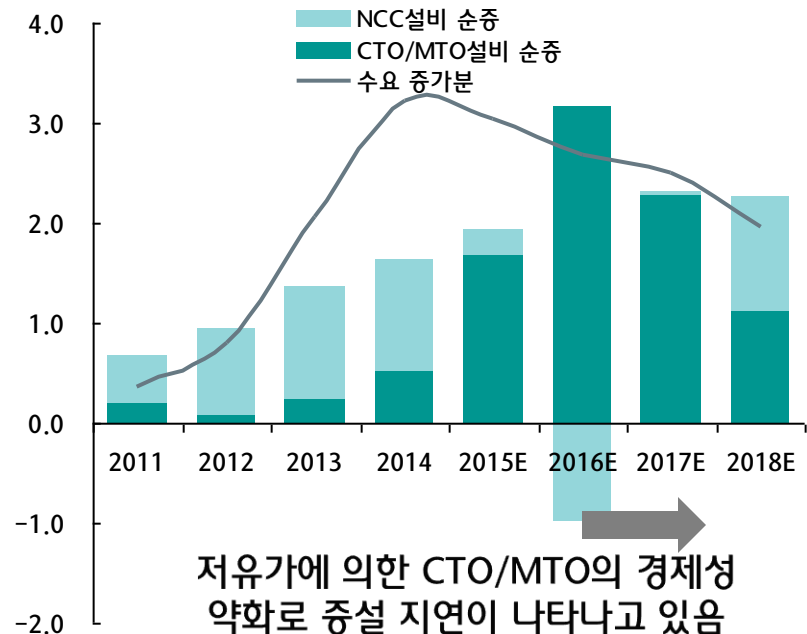
**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생산원가(Cash cost) 산출 결과

에틸렌 수급동향



- 자료 : Ciscchem

아시아 역내 에틸렌 설비 증설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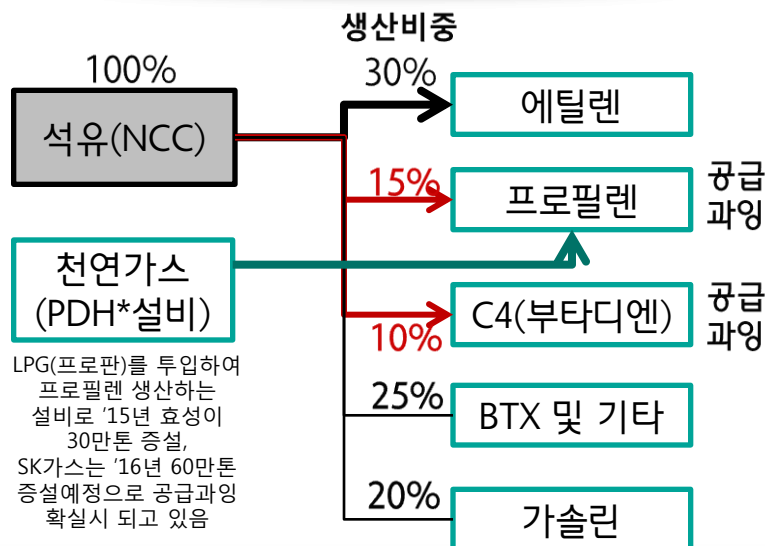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IHS

석유화학: 에틸렌 제외 기초유분들은 공급과잉 전망

- 에틸렌 수요 증가에 따른 NCC 가동 증가는 프로필렌, C4(부타디엔) 등 에틸렌을 제외한 다른 기초 유분의 공급 과잉을 유발시키고 있음
- 프로필렌은 중국 내 자급률이 85%를 넘어서고 있으며, '15~'16년 국내 대규모 프로필렌 제조 설비(PDH) 증설 예정에 따른 과잉 공급이 우려됨
- 합성고무제조에 쓰이는 C4(부타디엔) 계열은 타이어 수요 부진 및 천연고무 시황 악화에 의한 가격 및 이익률 하락이 지속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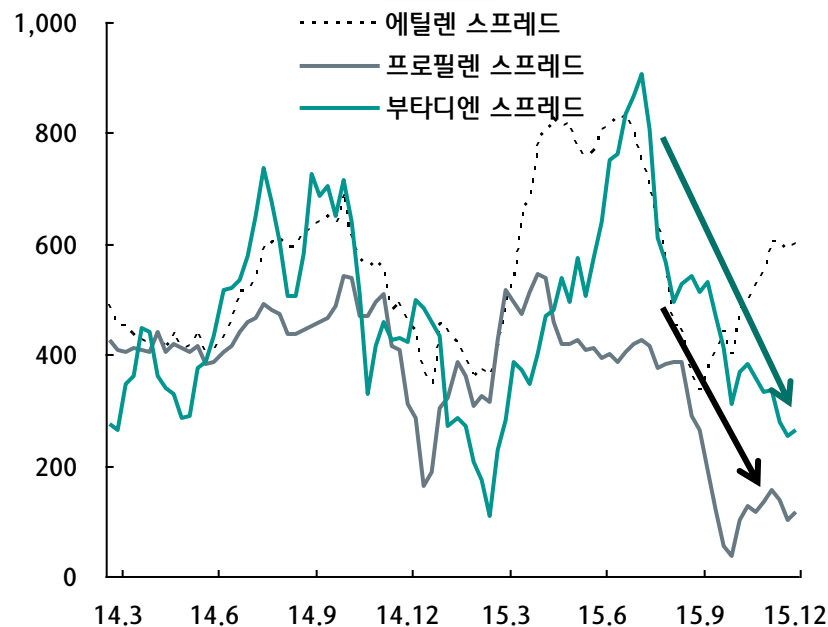
기초유분 공급과잉 메커니즘



에틸렌 수요 증가에 따른 NCC가동을 증가로 인해 **다른 기초 유분 생산까지 증가**하여 공급과잉 유발

* PDH (Propane De-Hydrogenatio): LPG(프로판)에서 프로필렌을 제조하는 설비

기초유분의 스프레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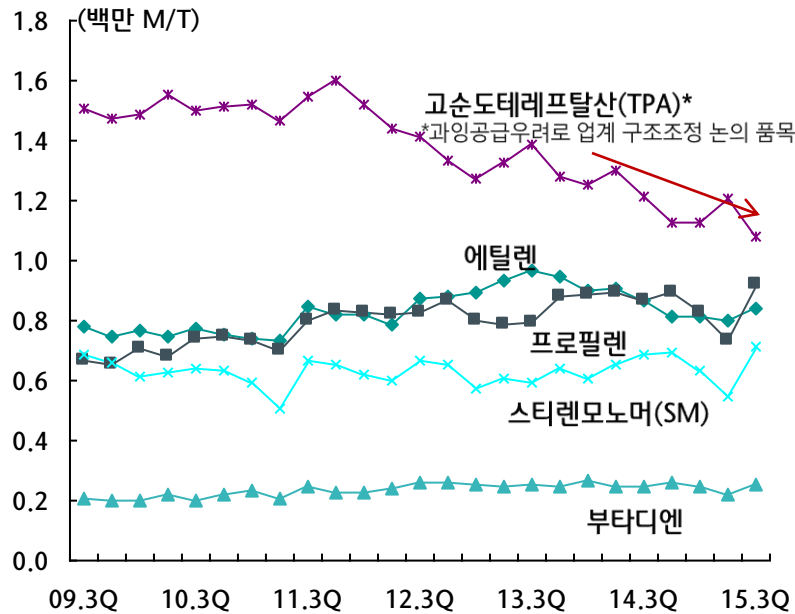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Ciscchem

석유화학: 석유화학 제품별 중국 자급률 우려

- 화석원료인 고순도테레프탈산(TPA)은 중국 자급률이 100%가 되면서 수출 급감 및 가격 급락
 - TPA 가격은 '14.6월 톤당 1000원에서 '15.12월 현재 605원으로 약 40% 하락
- 중국 자급률이 80%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 구조 개선이 필요함
 - 폴리우레탄원재료인 PO는 국내 30만톤 생산규모이나 '18년 100만톤 추가 증설 계획 중
 - 탄소섬유 재료인 AN 역시 국내 85만톤이나 '17년 39만톤 추가 증설 계획 중

국내 주요 석유화학제품별 출하량



- 자료: 통계청

중국 석유화학제품 자급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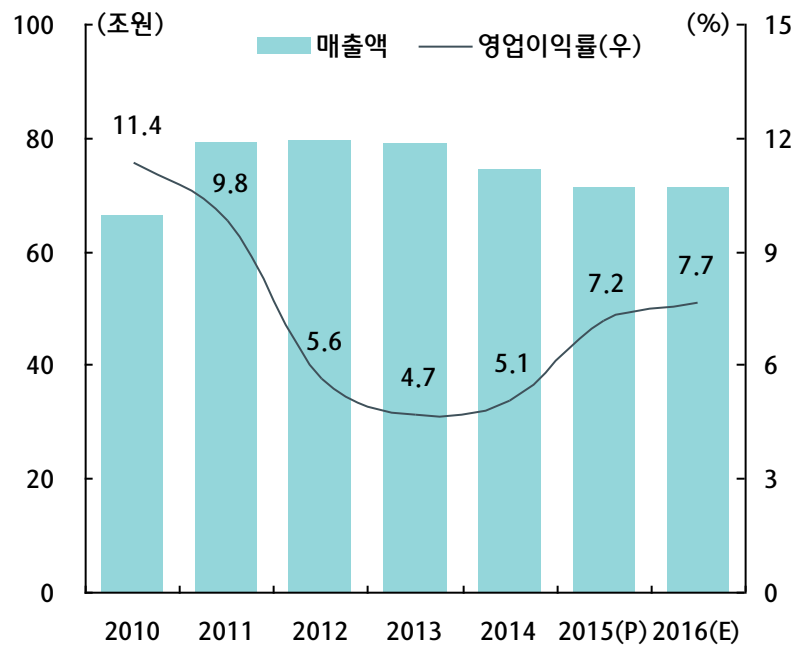
| | | 2013 | 2015 | 2020 |
|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에틸렌 유도품 | PE | 57 | 63 | 76 |
| | PVC | 95 | 95 | 96 |
| | SM | 50 | 52 | 62 |
| 프로필렌 유도품 | PP | 73 | 85 | 94 |
| | PO | 80 | 93 | 88 |
| | AN | 57 | 91 | 100 |
| C4계열 유도품 | BR | 80 | 87 | 94 |
| | SBR | 81 | 87 | 91 |
| | ABS | 57 | 63 | 58 |
| PX계열 유도품 | TPA | 91 | 103 | 107 |
| | PX | 47 | 58 | 73 |

- 자료: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

석유화학: 종합석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이익률 유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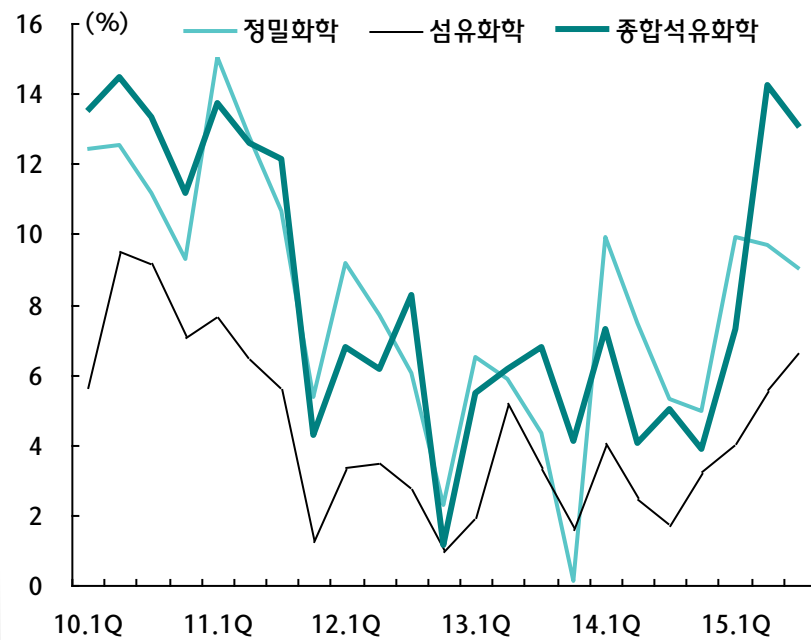
- 2016년 석유화학 매출은 에틸렌 부문의 생산 증가 효과를 타 제품들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생산 감소 효과가 상쇄시켜 전체적인 수준은 '15년 대비 1%대의 매출 상승 예상
- 이익률은 유가의 추가 인하에 의한 이익률 확대 효과가 반영되어 소폭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종합석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예상됨

석유화학 산업 매출 및 영업이익률



-자료: Kis-Value ('화학섬유제조업' 6개사, '기타화학제품제조업 38개사, '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' 17개사 합산)

석유화학 업종별 분기 영업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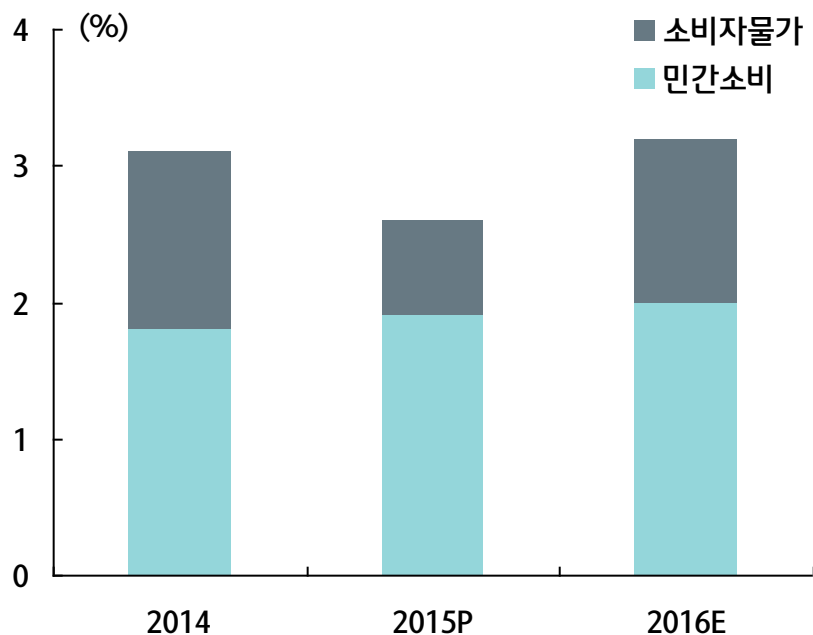


-자료: Kis-Value (분기별 합산 영업이익률, 섬유화학은 '화학섬유제조업'(6개사), 정밀화학은 '기타화학제품제조업(38개사), 종합석유화학은 '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'(17개사) 대상

소매유통 : 민간소비, 물가의 제약 속에 소폭의 회복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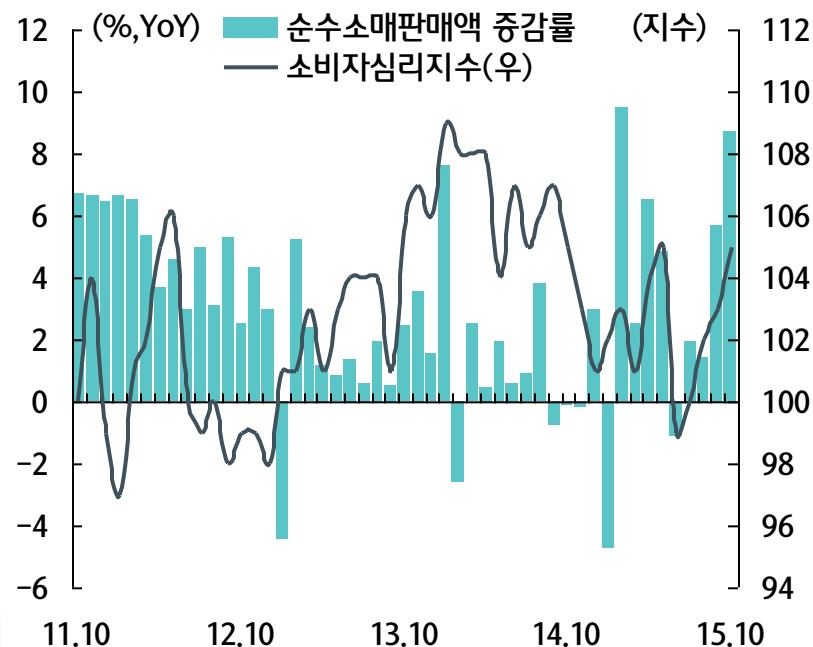
- 2016년, 노후 대비와 가계 부채 조정에 따라 민간소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 압력 부재로 제한적 회복에 머무를 전망
- 다만, 그 동안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선박사고, 전염병 사태 등으로 크게 침체되었던 소매판매액은 기저효과와 이연소비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3~4%의 소폭의 회복을 예상
 - 영업 규제, 선박사고 등으로 심리지수와 괴리를 보이던 소매판매액은 최근 동조화를 나타냄

민간소비, 소비자물가 전망



- 주 : 2015, 2016년 자료는 각각 연구소 추정치, 전망치
- 자료 : 한국은행, Hanaif

순수소매판매액, 소비심리지수



- 자료 : 통계청

소매유통 : 시장 정체 속에 환경 변화 적합도가 중요

- 시장의 큰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널간에 영역 뺏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
 - 이러한 경쟁은 결국 소비자 트렌드와 구성 변화에 적합한 정도가 승수처가 될 것으로 예상
- 저렴한 가격과 단순화된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 지속
- 1인가구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, 중국 등 국외의 소비자 유입이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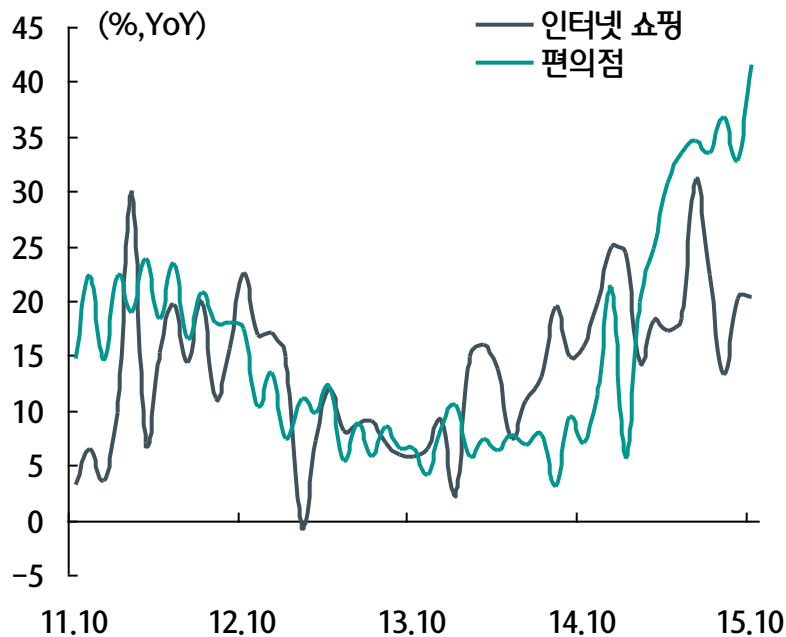
소매유통업과 관련된 환경 분석

| 구분 | 내용 | 영향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소비 트렌드 전망 | 합리적 소비 | 가격대비 품질을 중시 |
| | 정보 공유 | 소비자간 정보 공유 증가 |
| | 차별화 욕구 | 명품 소비도 있겠지만, 맛집이나 특이한 상품을 소비하거나 남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|
| | 증저가의 위기 | 저가의 합리적 소비와 고가의 가치 소비 사이에서 중간 가격 제품에 대한 무관심 증가 |
| | 콘텐츠 소비 | 1. 문화, 여행 등 무형상품의 소비 증가 2. 더 나아가 유형상품도 콘텐츠가 중요 (예 : '허니버터칩' 때처럼 SNS에 자랑하고 공유하거나 테마가 있는 몰링 소비를 함) |
| | 단순화 | '백종원 레시피'처럼 단순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원함 |
| 소비자 구성의 변화 | 1인 가구 | 1인 가구가 증가 |
| | 인구 구조 변화 | - 소비가 가장 활발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체되고 고령화 인구의 비중 증가 - IT 친숙도가 높은 인구의 비중 증가 |
| | 중국관광객의 유입 | 국내 시장의 정체 상황에서 중국소비자의 유입은 빠르게 증가 |

소매유통 : 환경 변화에 적합한 편의점, 온라인 쇼핑은 성장 예상 한국경제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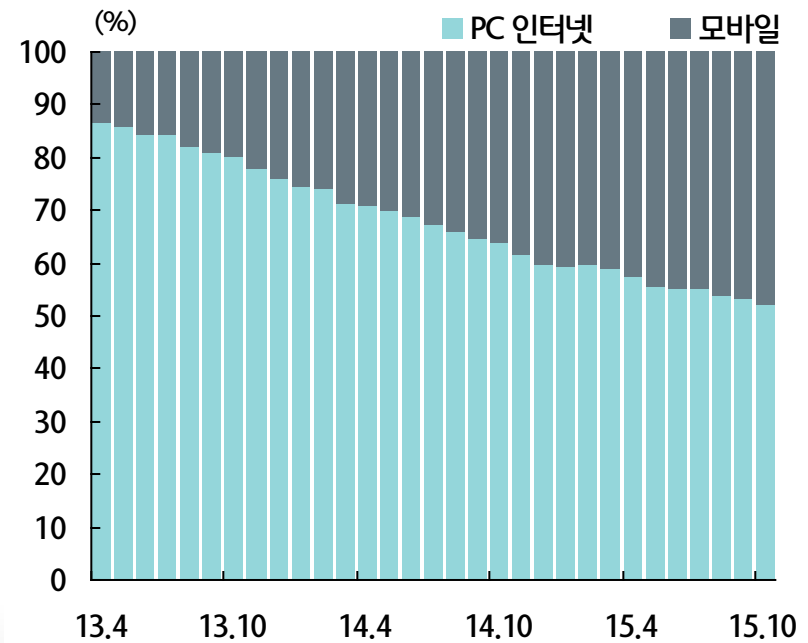
- 편의점은 1인 가구 증가, 근거리 소비에 적합하여 양호한 성장이 기대됨
 - 다만, 지금의 고성장은 담배값 인상이 큰 부분을 차지, 내년엔 10%대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
- 인터넷 쇼핑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큐레이션, 일일 특가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 쇼핑의 성장,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확장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
 - 온라인 성장의 주가 되는 모바일 쇼핑은 경쟁 강도가 너무 높아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듯

인터넷 쇼핑, 편의점 판매액 증감율



- 자료 : 통계청

매체별 인터넷 쇼핑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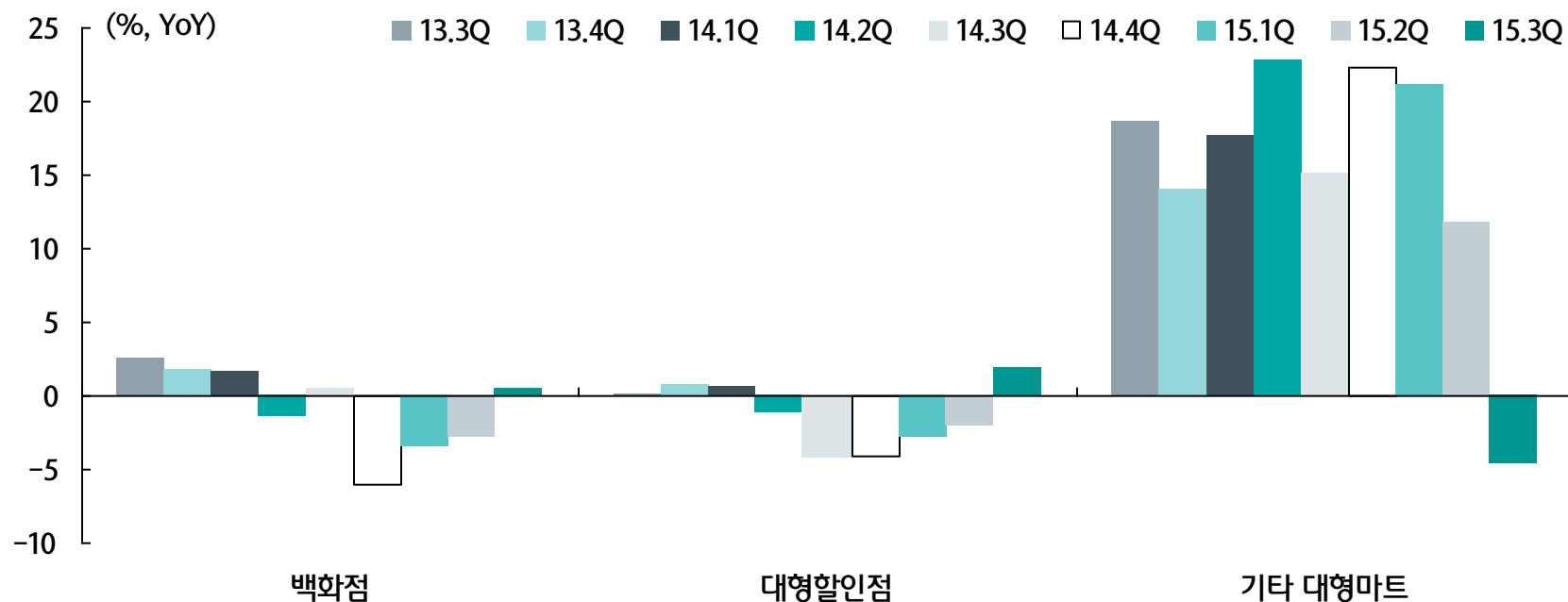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통계청

소매유통 : 대형 소매업은 기저효과에 따른 소폭의 회복 예상

- 저가채널로의 소비자 이탈이 있었던 백화점은 푸드 코트 강화, 신규 출점으로 성장세 회복 중
- 하지만, SPA, 아울렛, 인터넷의 저가 채널로의 소비자 이탈 지속은 성장의 제약 요인
- 대형마트는 영업규제의 감소 효과가 사라지고 있으나 정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
- 면세점은 중국인 유입 회복, 아울렛은 합리적 소비, 몰링 소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
- 다만, 메르스 사태('15.2~3Q) 때와 같이 외국인 유입은 변동성이 높아 모니터링 지속 필요

백화점,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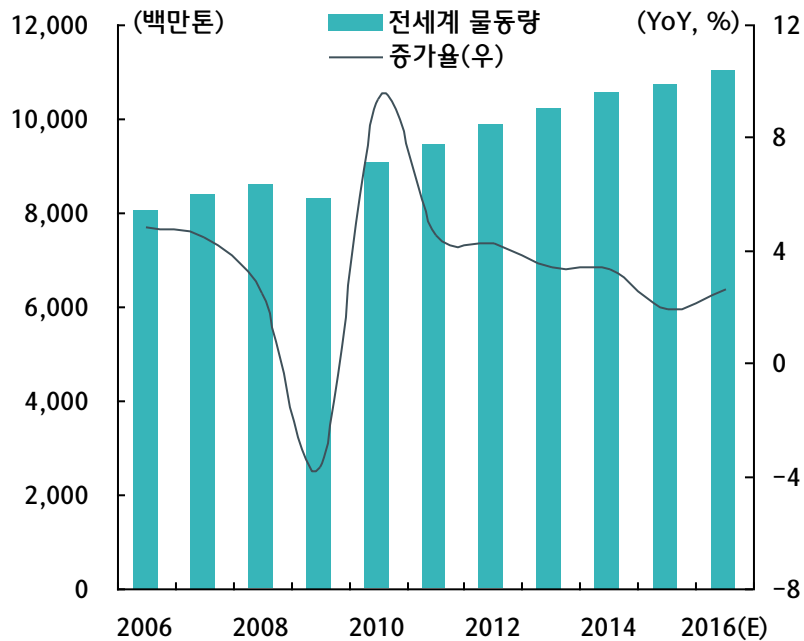
- 주 : 대형할인점은 이마트, 홈플러스 등 일반적인 대형마트를, 기타 대형마트는 아울렛, 면세점 등을 뜻함

- 자료 : 각 사 자료

해운: 중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낮은 물동량 증가율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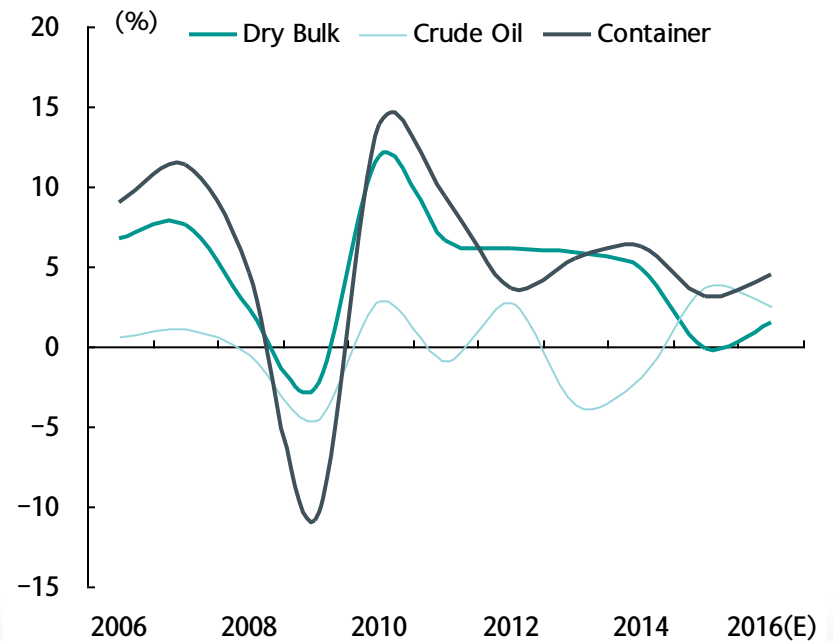
-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로 인해 전세계 물동량 증가율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전망
 - '16년 전세계 물동량 증가율은 '15년 증가율 1.9% 대비 소폭 상승한 2.7%로 예상됨
- 벌크와 컨테이너의 '16년 물동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겠지만, 원유는 증가폭 감소 예상
 - '16년 예상 Cargo별 물동량 증가율 : Dry Bulk 1.6%, Crude Oil 2.5%, Container 4.5%

전체 물동량



- 자료 : Clarkson

Cargo별 물동량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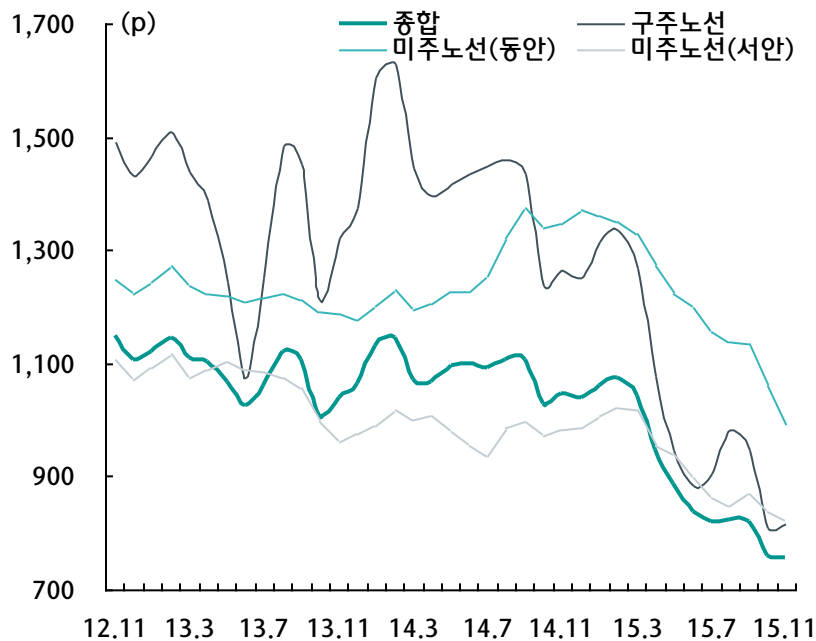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Clarkson

해운(정기선):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운임 회복 제한적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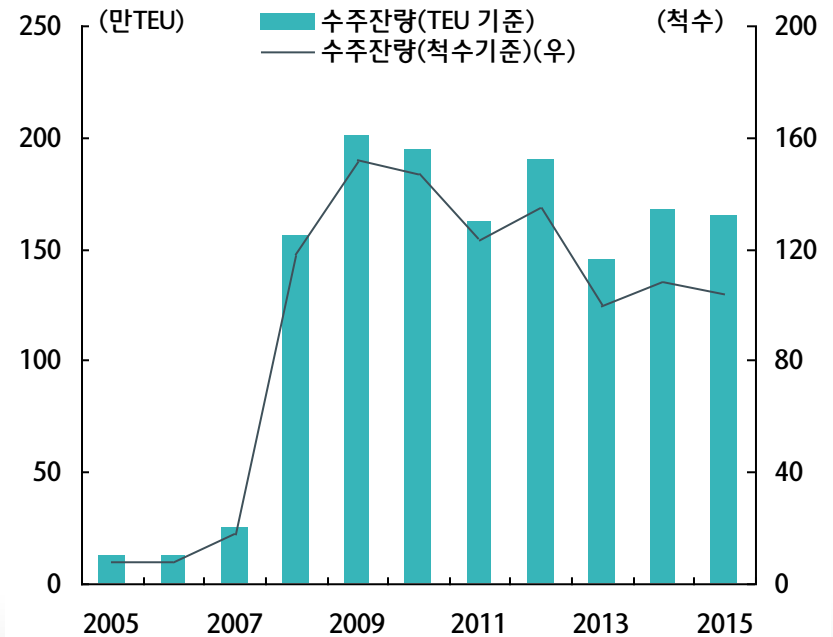
-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지속적인 인도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의미 있는 수준의 운임 회복 어려움
 - '15년 11월 기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(CCFI)는 758p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중
-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잔량이 과거 대비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선박 공급 과잉 장기화 우려
 - '15년 11월 기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주잔량은 현재 선박량 대비 약 67%에 달함

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(CCFI)



- 자료 : Shanghai Shipping Exchange

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잔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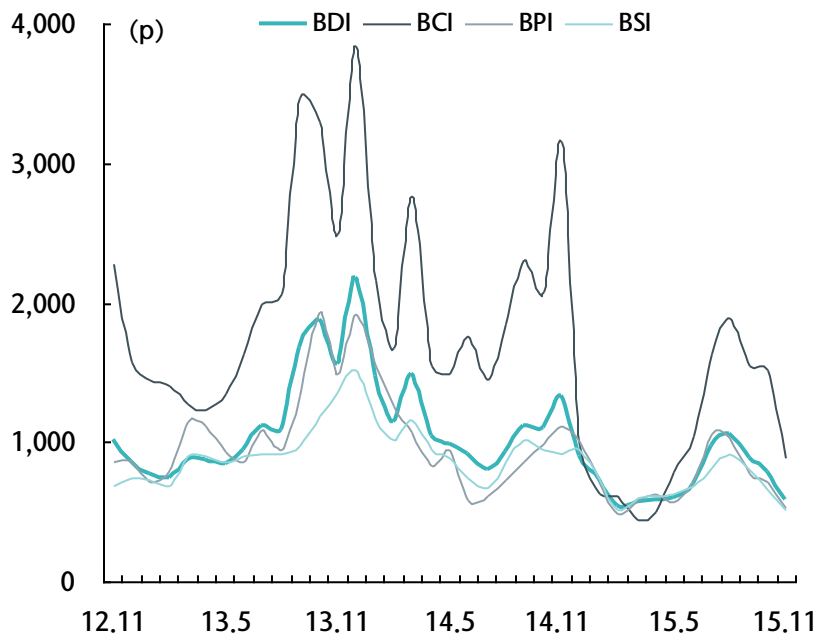


- 주 : 초대형컨테이너선은 12,000TEU 이상 - 자료 : Clarkson

해운(부정기선): 벌크 부진 지속, 탱커 운임 하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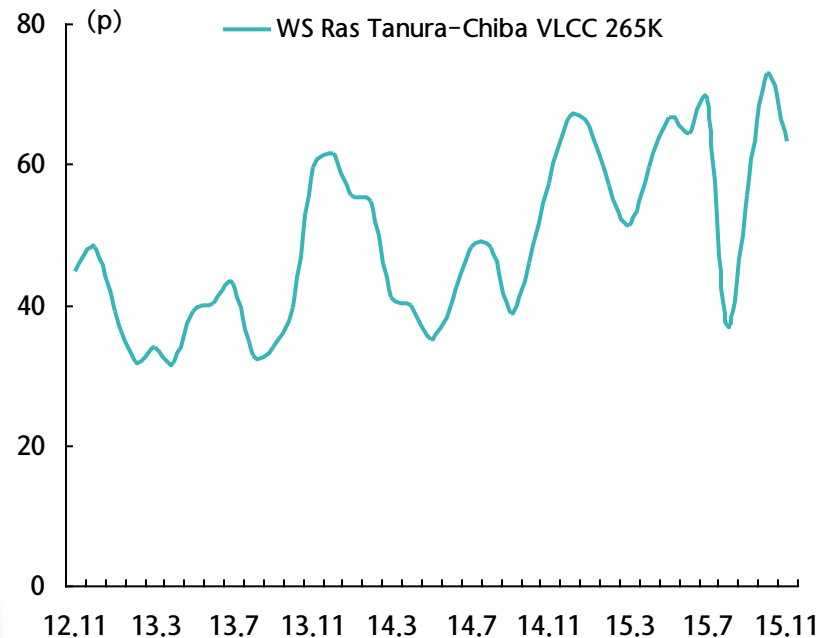
- 벌크 : 선박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부진까지 겹쳐 시황 침체 지속 전망
 - '16년 철광석과 석탄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각각 1.0%, 1.3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
- 탱커 : '15년은 저유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고운임이 지속되었지만, '16년은 운임 약세 전망
 - 초대형유조선(VLCC)의 선박량 증가율이 '15년 3.1%에서 '16년 6.8%로 크게 증가

벌크선 운임 지수



- 자료 : Clarkson

탱커선 운임 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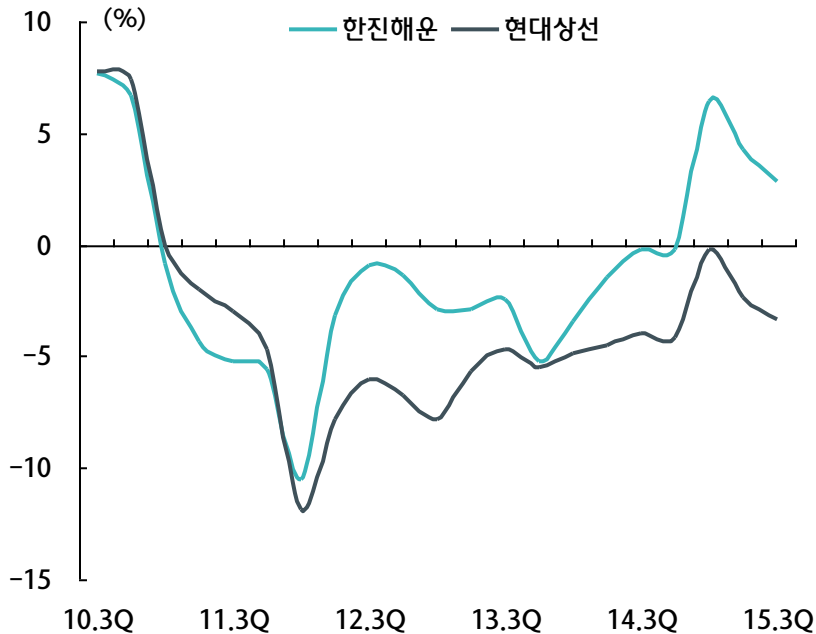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Clarkson

해운: 국내 주요 선사 간의 차별화된 실적 흐름 지속

- 정기선사 :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임 수준으로 인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며, 시황 약세의 장기화로 인해 '16년에는 컨테이너선사 간의 M&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- 부정기선사 : 양대 부정기선사인 팬오션과 대한해운은 법정관리 졸업 후 매출에서 장기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'16년에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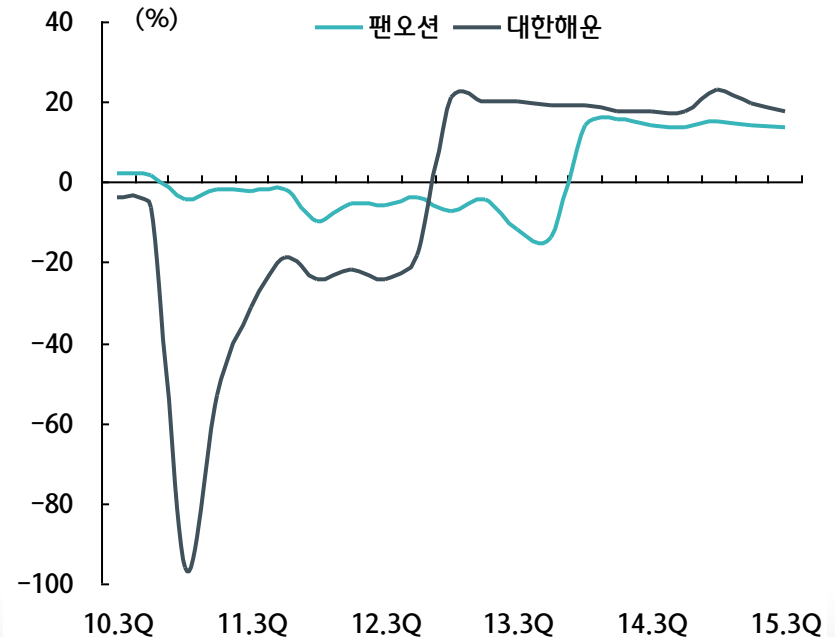
정기선사 영업이익률



- 주 :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 합계

- 자료 : Kis-Value

부정기선사 영업이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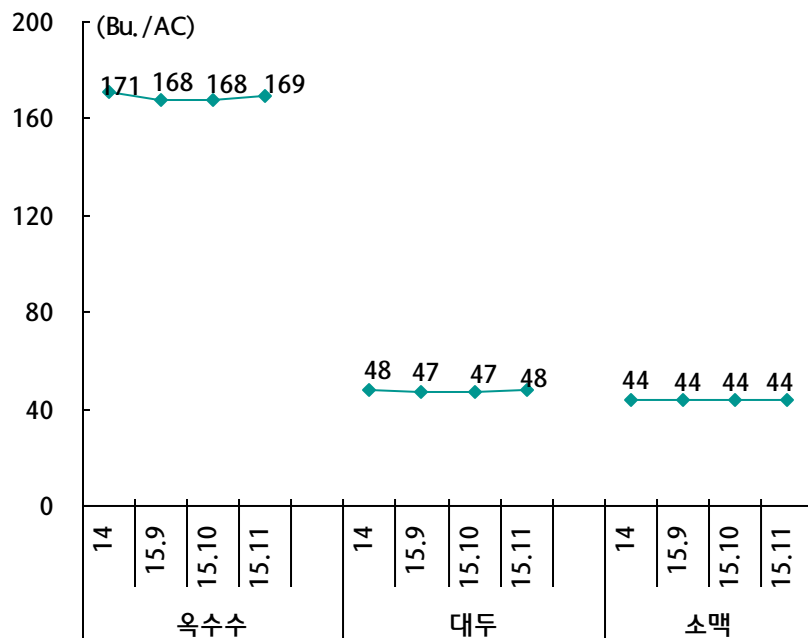
- 주 : 팬오션 및 대한해운 합계

- 자료 : Kis-Value

음식료: 2016년 국제 곡물가격, 하향 안정화 추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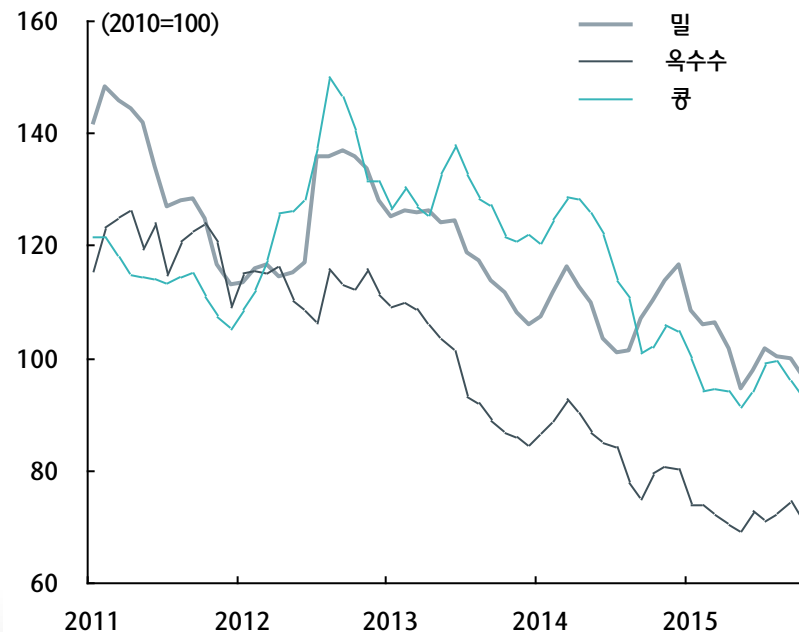
- 2016년 국제 곡물가격은 양호한 작황, 풍부한 재고,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 예상
 - USDA의 2015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2015/16년 주요 곡물의 생산 효율성 예상치 상향 조정
- 이에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는 국내 음식료 업체의 수입 곡물 가격 또한 안정화될 전망
 - 음식료 업체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, 소맥, 대두 등의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

글로벌 주요 곡물의 생산 효율성 전망



- 자료 : USDA

국내 곡물 수입가격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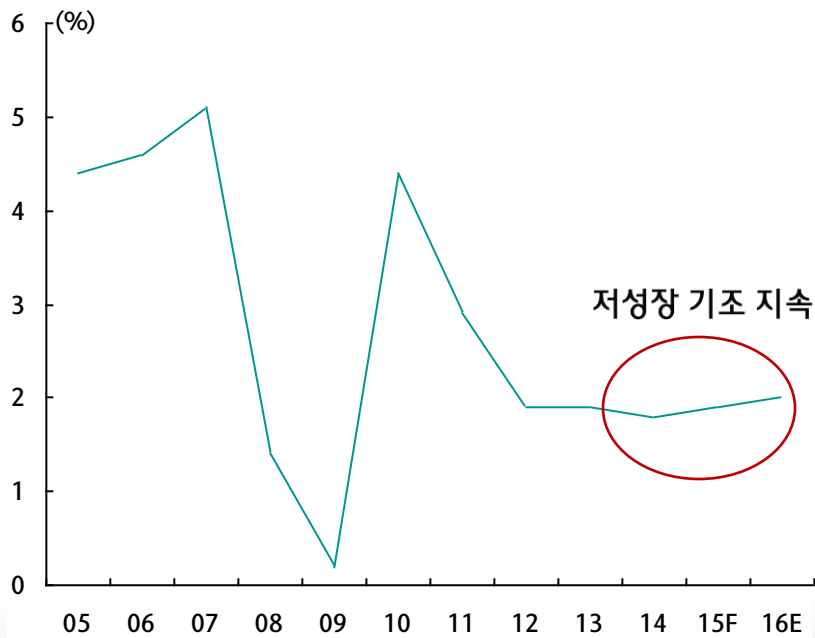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한국은행

음식료: 소비심리 회복이 저조하여 제품가격 상승도 요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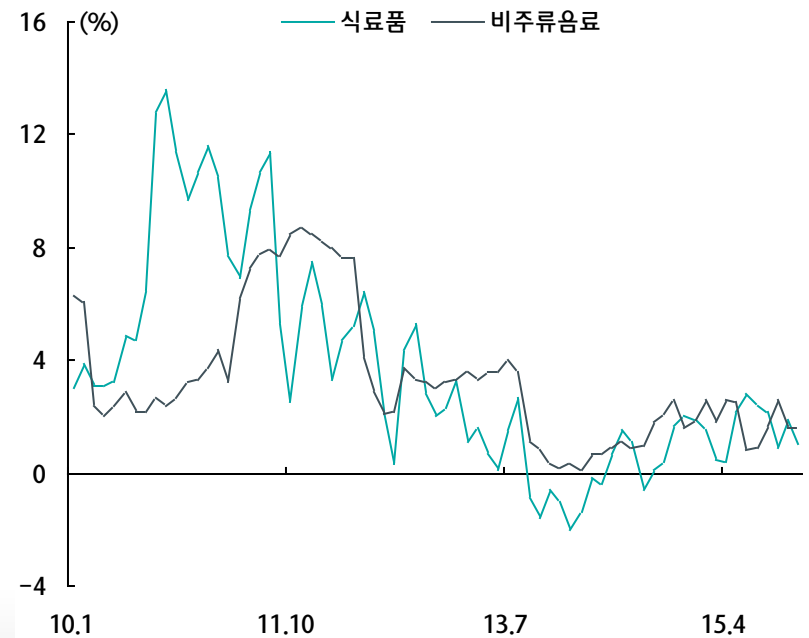
- 2016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저축 선호 및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회복이 제한될 전망
 -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(YoY) : 2.0%(1Q) -> 2.7%(2Q) -> 1.9%(3Q) -> 1.5%(4Q)
- 이와 함께 제품의 가격 상승 추세도 미진하여 국내 음식료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
 - 인구 성장 둔화로 양적 측면에서 성숙기 시장에 진입한 음식료 산업의 경우 가격 요인이 중요

국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



- 주: 한국은행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음식료 가격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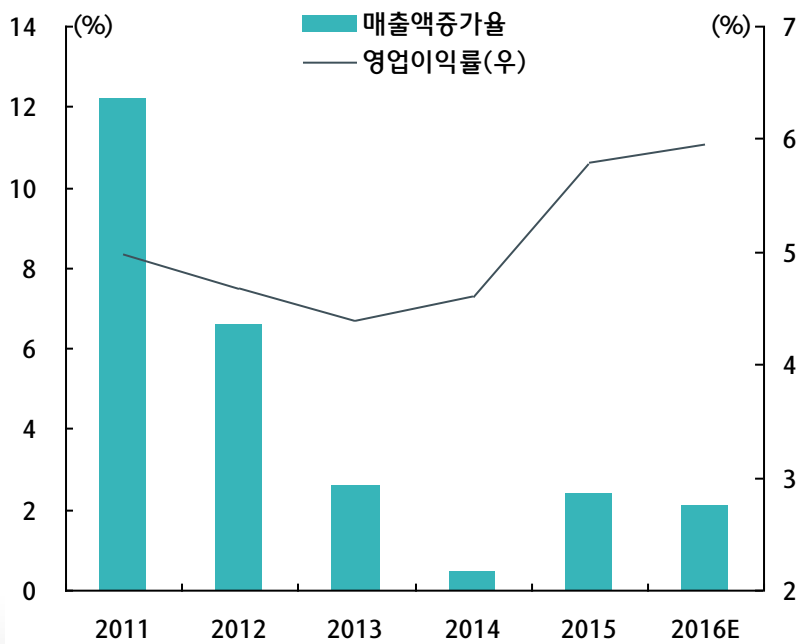


- 자료: 한국은행

음식료: 업체의 수익률은 소폭 상승하나 매출 성장은 미미

- 식료품 제조업의 수익률은 글로벌 곡물가격 약세 및 프리미엄 제품 라인 확대로 소폭 상승을 기대
- 다만, 국내외 소비심리 부진이 지속되어 업계의 외형 성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
- 음료 제조업 역시 원당가격 약세 속에 수익률은 다소 회복되나, 외형 성장이 제한되며 경쟁이 격화
- 최근 음료시장 내 제약 및 유업계 등 신규 참여자가 대거 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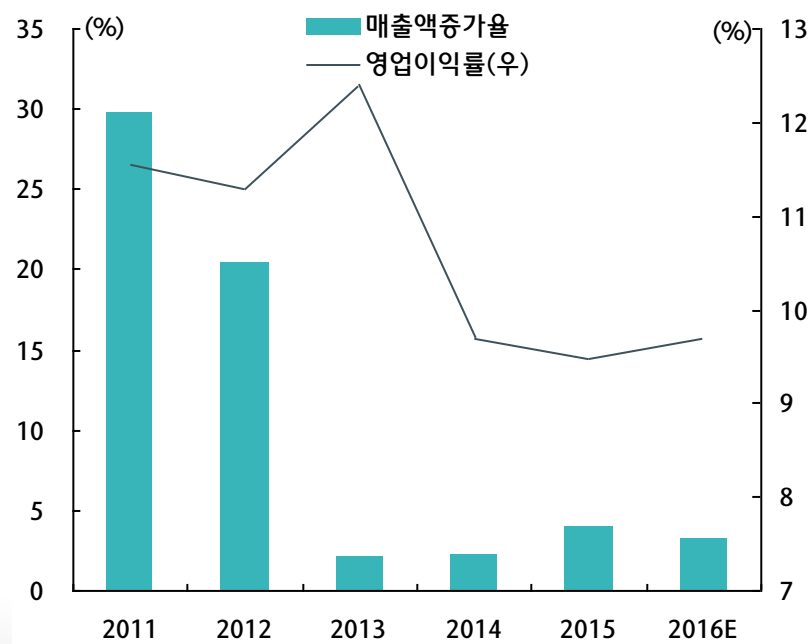
식료품 제조업체 실적 전망



- 주 : 식료품 제조업 441개사 합산 기준

- 자료 : Kis-Value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음료 제조업체 실적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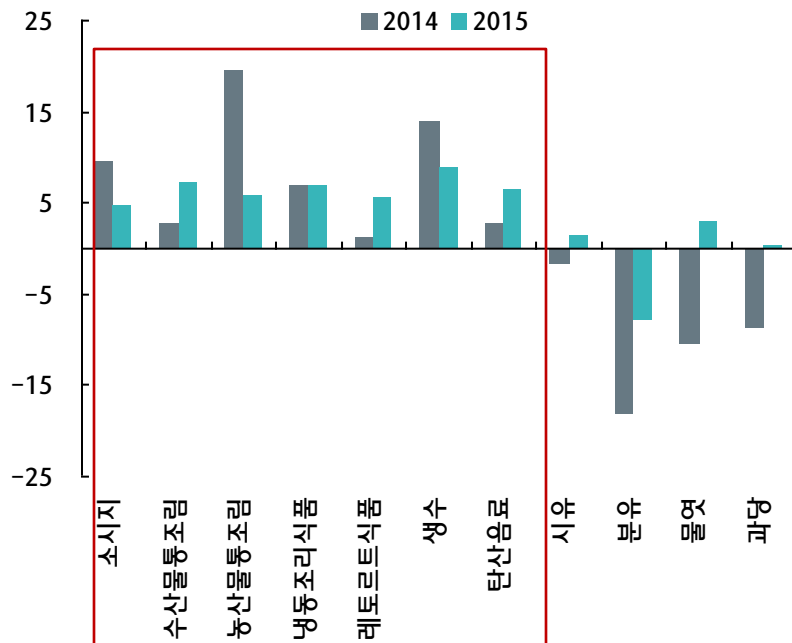
- 주 : 음료 제조업 64개사 합산 기준

- 자료 : Kis-Value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음식료: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성장 한디글로벌경영연구소

-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간편조리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시장이 크게 확대
 - 2014~2015년 출하량이 증가한 주요 식품군은 통조림, 냉동조리식품, 레토르트 식품, 생수 등
- 한편 경기의 장기 부진과 함께 소득 양극화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프리미엄 라인의 성장도 기대
 - 인구 고령화, 웰빙 트렌드 확산 등으로 고가의 원재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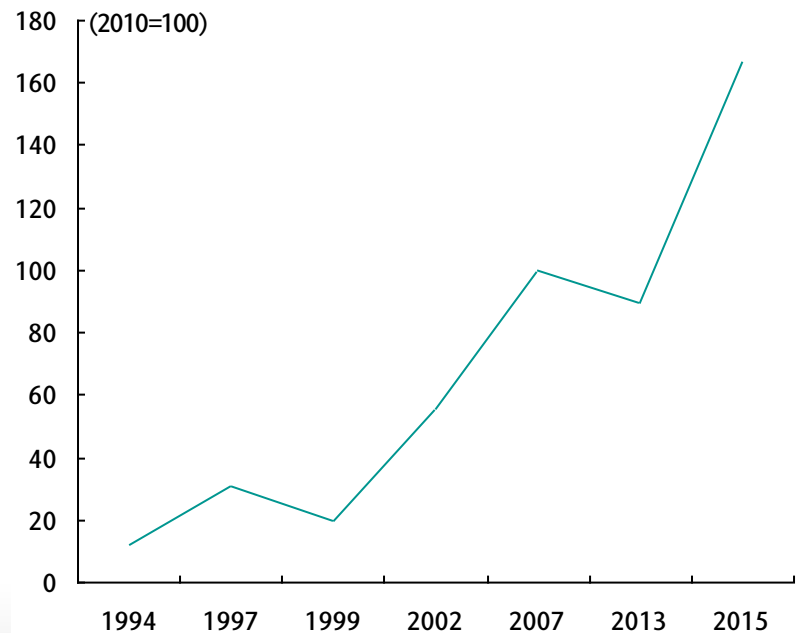
국내 주요 식료품의 출하 증가율



- 주: 2015년은 10월 누계 기준

- 자료: 통계청

국내 소득양극화 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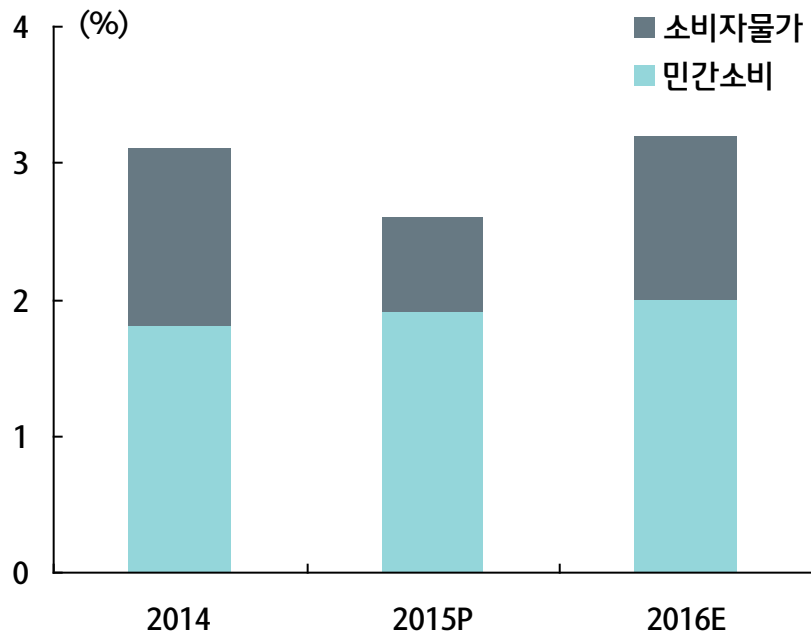


- 자료: 한국소비자원

의류 : 민간소비의 정체 속에 의류 소비 회복 가능성은 낮음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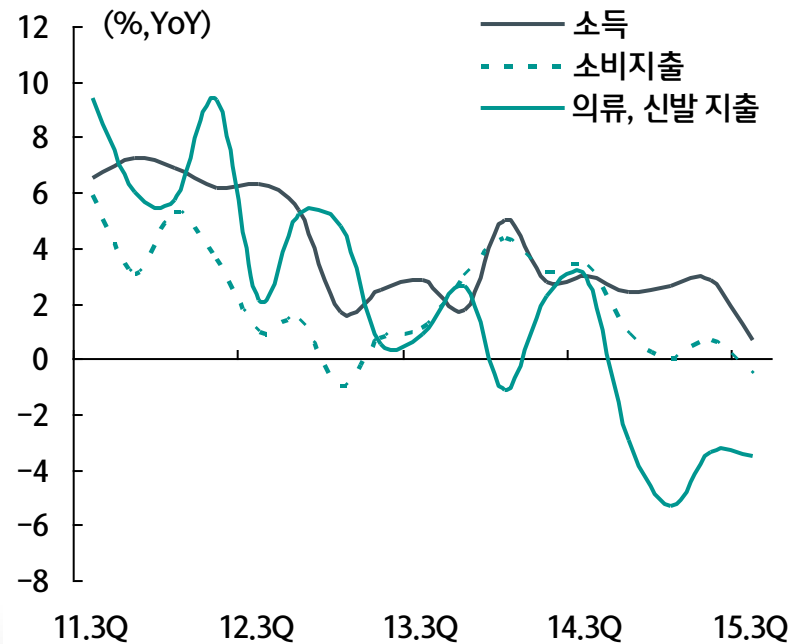
- 2016년, 노후 대비와 가계 부채 조정에 따라 민간소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 압력 부재로 제한적 회복에 머무를 전망
- 특히, 가계 의류 신발 관련 지출은 가계소득, 소비와는 큰 격차를 보이며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성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2015년 3분기 가계 소득, 소비, 의류 신발 지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.7%, -0.5%, -3.5%

민간소비, 소비자물가 전망



- 주 : 2015, 2016년 자료는 각각 연구소 추정치, 전망치
- 자료 : 한국은행, Hanaif

가계 소득, 소비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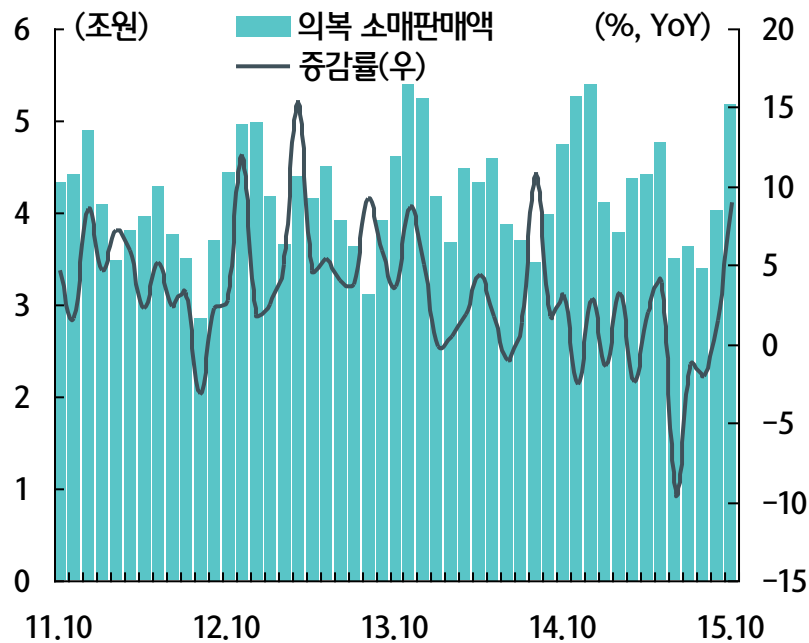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통계청

의류 : 최근 회복세를 감안하더라도 소폭 회복에 그칠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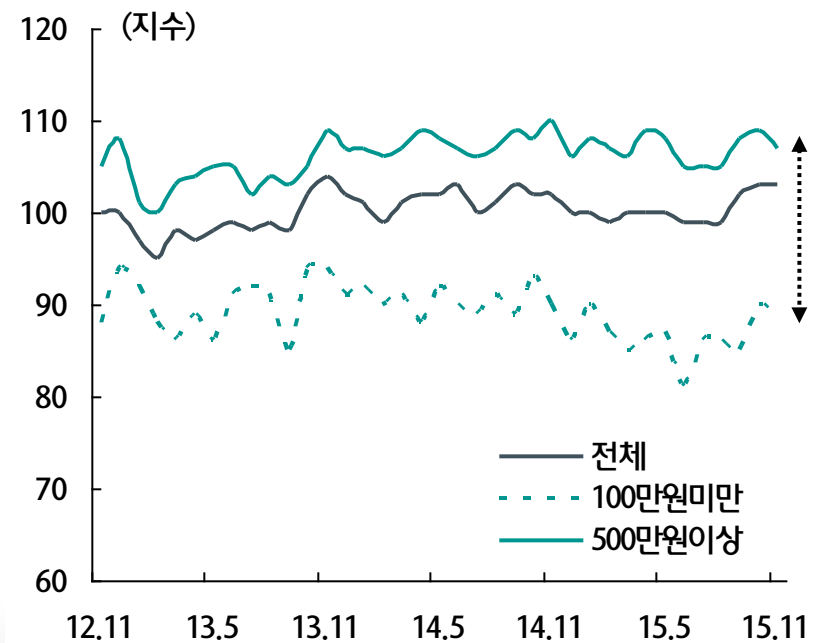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의류 지출 소비자 심리가 소폭 회복하고 있으며 의복 소매판매액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, 이연소비 실현과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16년, 1~2%의 소폭 회복을 전망
- 소득별 의류 소비 심리의 격차 심화, SPA 등 저가 제품의 성장에 따른 소비 양극화로 중저가 브랜드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성장하던 아웃도어 시장도 시장포화와 경쟁 심화로 부진 예상
- OEM분야는 TPP 시행의 수혜(베트남 생산 시설), 아웃도어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영향 차별화 예상

의복 소매판매액 추이



- 자료 : 통계청

소득별 의류 지출 CSI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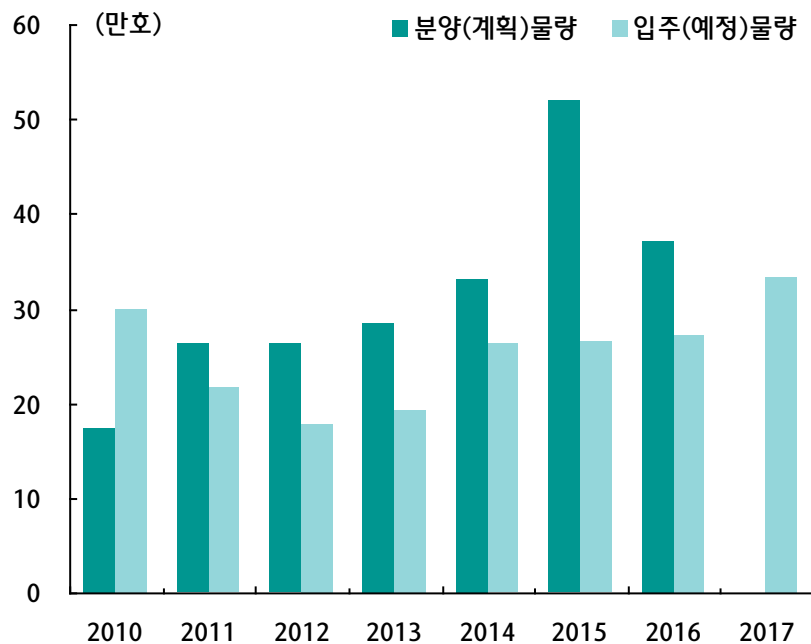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통계청

건설: 국내와 해외 건설시장의 차별화 흐름 지속

- 국내 주택시장은 물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호황
 - '15년 주택거래량(120만호), 주택인허가(70만호), 아파트분양물량(52만호) 금융위기 이후 최대
 - '15년 주택가격상승률 전국 +4.2%, 수도권 +4.2%로 2011년 이후 최고치
- 해외 건설시장은 저유가에 따른 발주 감소로 불황
 - 유가하락으로 해외 건설 발주물량 축소, AIIB 출범 등 아시아 인프라 시장 확대는 2017년 이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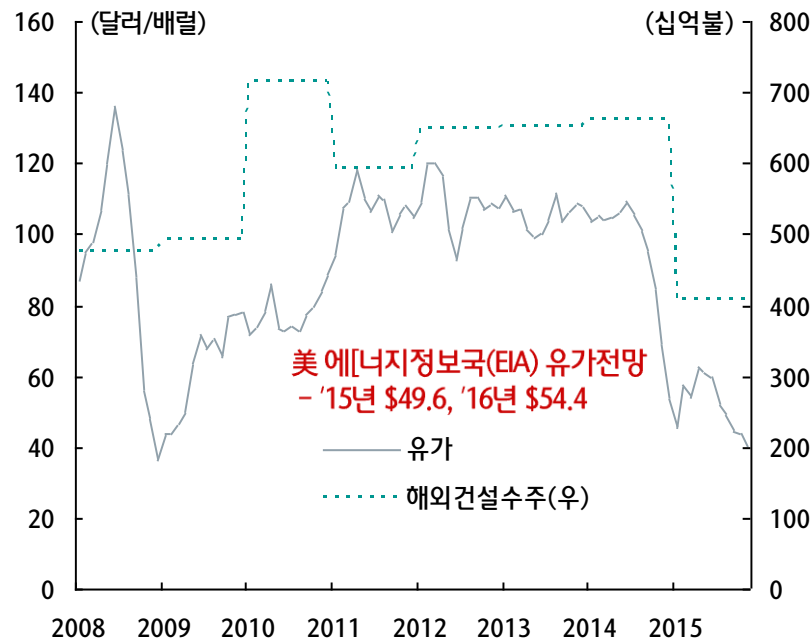
아파트 분양 및 입주물량



- 주: 2016년 분양물량은 업계 추정치

- 자료: 부동산114

유가와 해외건설수주액



美 에너지정보국(EIA) 유가전망
- '15년 \$49.6, '16년 \$54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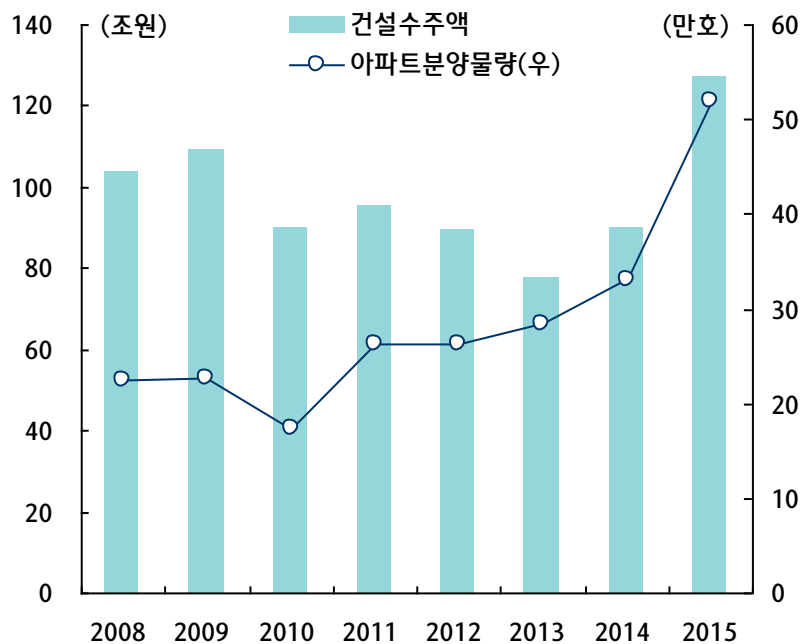
-- 주: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

- 자료: 연합인포맥스, 해외건설협회

건설: 국내는 주택 중심 회복세이나 해외 건설수주는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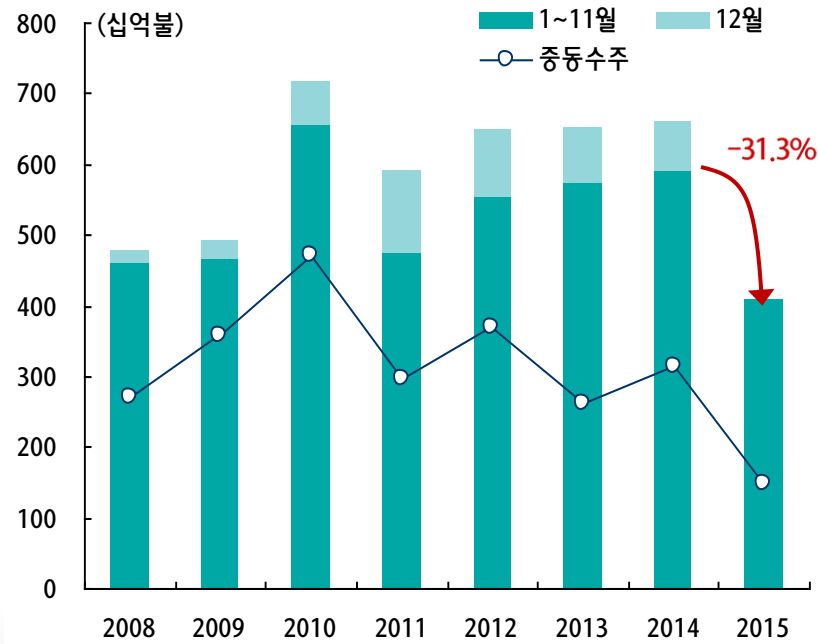
-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국내 건설수주 급증
 - '15년 주택분양 및 거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민간 건축수주 급증(3Q 누적 YoY +149.8%)
 - 정부 SOC예산 증가(+4.6%)로 '15년 공공 토목수주가 늘었으나 '16년에는 SOC 예산 6% 감소
- 유가하락에 따른 중동 플랜트 발주 감소로 해외 건설수주액 급감
 - 1~11월 해외건설수주액 전년대비 31.3% 감소, 중동수주액은 52%나 감소

건설수주와 아파트분양물량



- 자료 : 통계청, 국토교통부

해외건설수주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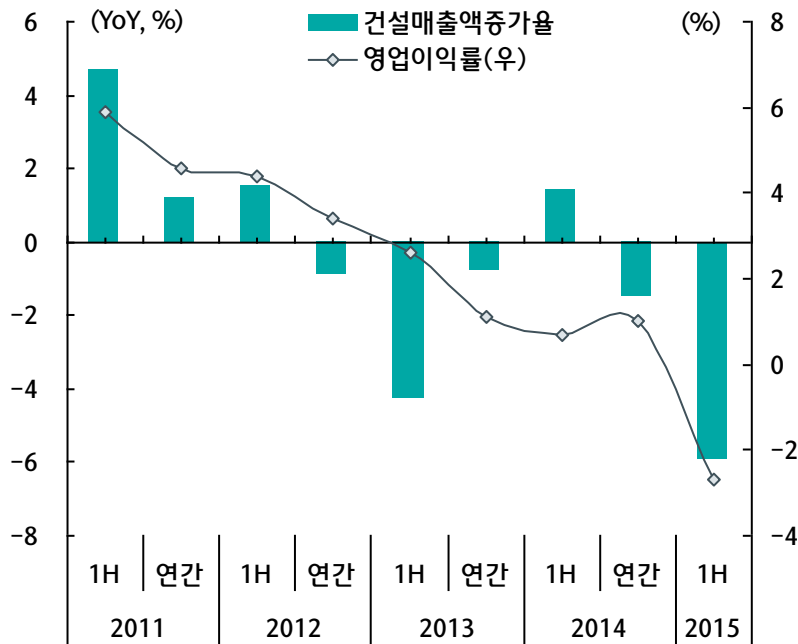


- 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건설: 건설업계 실적 양극화 심화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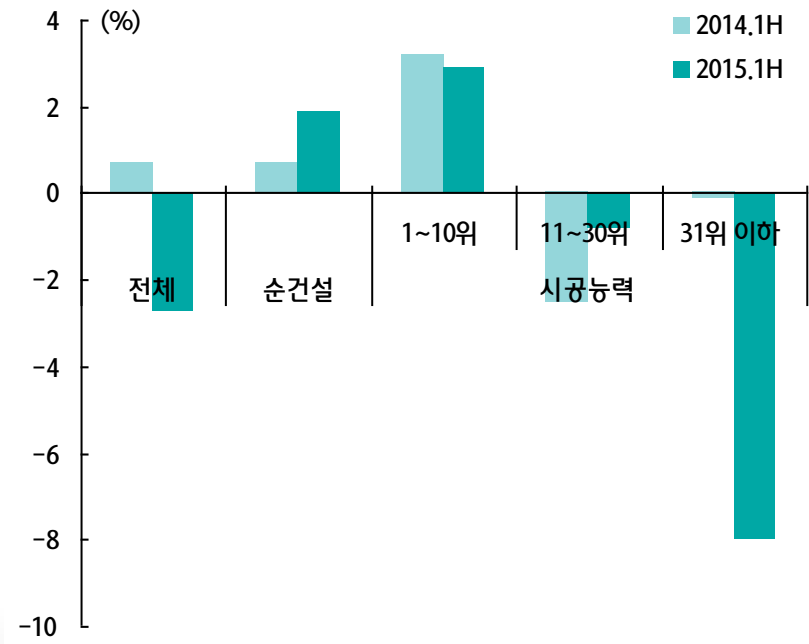
- 건설업체 실적 악화추세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전문업체의 이익률은 비교적 양호
 - 조선업 겸업 건설사의 실적악화로 매출액, 영업이익률 모두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
 - 건설전문업체(건설 매출 비중 80% 이상)의 '15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.9%로 비교적 양호
- 규모, 공종, 국내/해외 비중 등에 따른 건설업계 양극화 지속 전망
 - 대형 건설사, 국내 건설전문업체 등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

종합건설사 경영실적



- 자료 : 대한건설협회

시공능력순위별 영업이익률



- 자료 : 대한건설협회